취업문 '면접룩'으로 뚫자

metro
메트로 2014년 10월 16일 목요일 제3074호 www.metroseoul.co.kr

'삼시세끼' 예능 쉽지 않을 것

가까이 하기엔, 국감장서 고개숙인 전 KB회장과 전 KB은행장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제윤(가운데) 금융위원장과 임영록(오른쪽 첫 번째) 전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왼쪽 첫 번째) 전 KB국민은행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관련기사 8면> /뉴시스

대기업 공채 '역사 알기' 대세로

인문학적 깊이 측정, 그룹 인재상 적합여부 가늠
소양평가 의미있지만 또다른 스펙 부담 지적도

"몽골과 로마제국의 세계 제패 이유와 생각을 밝히고 현대차의 글로벌 전략에 시사하는 점을 쓰시오."(현대차그룹)

"개화기 조선을 침략한 국가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삼성그룹)

하반기 대기업 공채 시험의 화두는 단연 '역사'다. 주요 그룹사의 필기시험인 인적성 검사가 한창인 가운데 출제된 역사 문항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5일 취업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졸 공채 필기시험을 진행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역사 에세이 과목에서 두가지 서술형 주제를 냈다. 하나는 몽골과 로마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와 생각, 이를 통한 현대차의 글로벌 전략과 지속성장 시사점을 서술하라는 것. 또 하나는 신사임당은 당초 저평가된 인물이었는데 율곡 이이의 붕당 세력이 강해지면서 조선 최고 현모양처로 재평가됐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업적과 실력에 비해 저평가된 인물을 쓰고 재평가하라는 것. 60분동안 700자씩 서술하라는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하반기 공채부터 역사 에세이 문항을 필기시험에 도입했다.

현대차 인적성 시험을 두번째 치른다는 대학생 이모(27)씨는 "주관 문제보다 역사 에세이가 제일 어려웠다. 기존보다 문제 수준이 까다로워졌다"며 "나는 저평가된 인물로 정도전을 썼는데 다들 사극 주인공을 거론하더라. 평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유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측은 "역사 에세이는 지원자의 역사관과 인문학적 깊이를 측정해 그룹 인재상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열린 삼성그룹 필기시험에서 역사 문제는 전체 상식 문제의 20% 분량으로 상반기보다 비중이 커졌다. 문항은 사건 암기가 아닌 시대별 흐름에 중점을 두었으며 한국사와 인문학, 세계사까지 접목해 난이도가 올라갔다.

지난 4일 열린 LG그룹 필기시험의 '인문역량' 과목은 역사 10문제와 한자 10문제로 구성됐다. LG디스플레이에 지원한 최모(26)씨는 "역사 문제는 상식선에서 나왔지만 대충 공부한 상태에서 풀려면 힘들다"고 말했다.

CJ그룹과 SK그룹은 19일에 필기시험이 있다. 두 회사 필기시험에도 역사 소양을 묻는 문제가 강화된다. CJ 측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오늘날 현재 이슈와 엮어 문제점까지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을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취업 준비생 사이에 역사 시험은 호불호가 갈린다. 인문학 소양 평가는 의미있지만 역사 실력이 또 다른 취업 스펙이 되어 구직자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대기업의 역사 시험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사교육 의존이 큰 효과가 없다. 팍원 주입식 교육이 낳은 단순 지식이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역사 흐름에 대한 관점 정리가 중요하다. 아울러 역사관은 구직자의 가치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자사의 기업가치와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라도 역사 시험 강화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설악산 단풍 이번 주말 절정

도로·등산로 '북새통' 전망

설악산 단풍이 이번 주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름다운 단풍 풍경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인파로 도로, 등산로 등 곳곳이 붐빌 전망이다.

15일 설악산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대청봉을 중심으로 시작된 단풍이 빠른 속도로 해발 500~700m까지 내려왔다.

설악산 단풍은 이번 주말 주전골, 백담계곡 등 산 전체의 30%가 물드는 절정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계령과 설악동 진입로 등 설악산 주변도로는 행락차량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청봉, 공룡능선 등 주요 등산로도 등산 인파로 혼잡,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

주말인 지난달 27일 설악산 9부 능선 일대의 단풍 모습. /연합뉴스

경찰과 자치단체는 차량 혼잡이 예상되는 한계령과 설악산 진입로에 인력을 집중배치할 예정이며 설악동 지역은 승용차 소공원 진입을 통제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올 가을 설악산 단풍은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고 지난달 중순부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예년보다 색깔과 상태가 좋다는 평가이다.

/하정우기자

보육료 예산 정부는 "나몰라라"

기자 수첩
윤다혜
<정치사회부 기자>

정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아니라며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양 부처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키로 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되는 비율이 법률로 정해진 만큼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는 셈이다.

더욱이 내년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 3000억원 줄고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소요예산은 30%정도 더 늘어난다.

정부는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서로 협력하겠다는 입장만 밝히며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누리과정 편성을 거부한 교육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에 불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누리과정은 정부시책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며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직전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만 부추길 것이 아니라 전액 부담해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30일 남북 고위급 접촉 갖자"

어제 군사당국자 비공개 회담… 합의 사항은 없어

국방부는 15일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을 했다"며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김기웅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문상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준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을 단장으로 리선권 국방위 정책국장과 곽철휘 국방위 정책부국장이 참석했다.

북측은 이날 접촉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 경비계선 내에 남측 함정의 진입 금지와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비방 중상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 측은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준수해야 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특성상 민간 단체의 풍선 날리기와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접촉에서 차기 회담 일정이나 별도의 합의 사항은 없었다"며 "분위기는 남북 상호 간에 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진지하게 협의했지만 양측 입장차가 있어서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을 오는 30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의로 지난 13일 대북 전통문을 보내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정기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밀라노 아셈회의 참석차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저녁(한국시간 15일 오전) 이탈리아 리나테 밀라노 국제공항에 도착, 메르쿠리 주한이탈리아 대사 등 환영나온 인사들의 영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과 야당 보좌진의 고향

여의도 노트북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국정감사가 중반에 들어섰다.

국감과 의원실 보좌진의 고향은 중요한 상관 관계가 있다. 적어도 각 기관에서 국회 업무를 하는 연락관에겐 더욱 그렇다.

국감은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여당보다는 야당의 주무대다. 가끔 여당 의원도 매섭게 호통치는 경우가 있지만 여당도 사실상 당정 협의 등을 통한 국정의 동반자로 볼 수 있기에 결정적인 순간엔 정부 기관을 감싸기 마련이다.

야당 보좌진은 정부 기관 연락관들이 주로 신경쓰게 된다. 여기에 고향이 큰 역할을 한다. 야당 의원실 보좌진의 고향을 조사하고 동향인 각 기관 직원들이 동원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야당 A의원실 B보좌관의 고향이 제주도라면, 피감 기관인 C공사에 제주도 출신 D직원이 B를 만나러 온다. B와 D는 당연히 아는 사이는 아니다. 국회 업무를 하는 직원은 별도로 있지만 기관 내 제주도 출신 직원들이 동원되는 것이다.

대회 업무를 하던 직원이 아닌 경우, 차출된 제주 출신 D는 말 주변도 없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른 채 일단 의원 회관에 온다. 가끔은 일면식도 없던 보좌관과 동향 출신 기관 직원이 어색한 식사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고향 사람을 통한 보좌진 공략이 잘 먹힌다. 지역색이 강할수록 동향끼리 밀어주고 도와주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도 피감 기관들의 국감 방어법은 똑같았다. 경주 출신 보좌관에게는 인사 서류를 뒤져 경주 출신 직원을 보내 인사하게 하는 식이다. 경주 출신 모 보좌관은 자꾸 경주 출신 직원들을 보내는 피감 기관에 "경주 사람들 자꾸 보내지 말고, 정 보내려면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나 찾아서 보내 달라"고 선언했다. 농담반 진담반이었던 그 말을 듣고 해당 기관에선 실제로 그의 첫사랑을 찾아보려 애썼다고 한다.

사실 애향심을 이용하는 이같은 방법은 국회에서만 통하는 것은 아니다. 전혀 모르는 누군가와 끈을 찾을 때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맨 처음 고려하는 방법이다. 사회가 투명해질수록 이런 방법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같은 학교, 같은 고향끼리 싸고 도는 문화는 선진적 문화라 할 순 없다.

오늘도 각 사무실에서 올라온 각 피감 기관 직원들이 의원들의 질의서 내용에 대해 미리 알아보기 위해 의원 회관을 돌고 있다. 고향 사람이라면 매정하게 내치지 못하는 한국인의 심리를 이용하는 피감 기관의 고향 사람 보내기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아마 고향에 대한 한국인 고유의 애틋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될 것이다. /유보희

'세월호 국감' 본격화

여야, 해수부·해경 추궁

세월호 사고와 구조 실패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했던 대로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는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감사와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참사 당시 구조 과정의 문제점과 선박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농해수위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는 예고된 인재"라고 지적, 정부 재난 대응 시스템의 허점과 후속 대책 미비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를 돌이켜볼 때 부족함이 많았는데 업무 처리에 좋지 않은 관행이 있었고 타성에 젖어 허점을 미리 짚지 못했다"며 과거 관행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열린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유승우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도 최근 발표된 세월호 감사 결과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의 상황 설명을 보고받고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더욱 문제로 이 때문에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지속가능 화해 공간으로 DMZ 만들어 가길 바라"

정홍원 국무총리는 15일 "분단과 대립의 현장인 비무장지대(DMZ)를 지속 가능한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5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고위급 회의의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남북한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힘을 합쳐 공원을 조성해 운영함으로써 DMZ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해 접경 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와 생물 다양성 다이얼로그'를 제안했다.

정 총리는 "전 세계 접경 지역 보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나아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국가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럽과 남미 등 기존 네트워크와 연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기준금리 연 2% '사상 최저'

한은, 두 달만에 또 0.25%p 내려…올 성장 3.5%로 하향조정

한국은행은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8월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금리 인하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2개월만에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통위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마이너스 GDP 갭 해소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점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할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 주체들의 심리 문제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다"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0%에서 3.9%로 낮췄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10월16일 0.25%P 인하

2.00%

자료/한국은행 연합뉴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1.9%에서 1.4%로, 내년은 종전 2.7%에서 2.4%로 각각 수정 전망했다.

그는 "금년과 내년 경제를 다시 전망한 결과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의 해소 시기가 종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이 최경환 경제팀과 정책 공조를 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는 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해야 할 만큼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데다가 유로존의 경기침체 등 대외 악재도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한은이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 인하함에 따라 은행권 예금·대출금리도 줄줄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면 적정한 조달금리를 운영하기 위해 예·적금 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민 기자 min @metroseoul.co.kr

성수대교 붕괴 20년 15일 오전 서울 성수대교 붕괴지점에서 서울시 직원들이 붕괴 방지 낙교방지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1994년 10월 21일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의 상판 48m 구간이 무너져 내려 32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사망하고 17명이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

동덕여대 한중미래연구소, 정기 학술대회

동덕여대 한중미래연구소는 11일 교내 예지관에서 '재중한인의 자녀교육: 갈등과 통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광운대 장수현 교수의 기조연설을 필두로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열렸다. 장 교수는 '지구화시대 한인 디아스포라 자녀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동덕여대 총장 김낙훈) 한중미래연구소장 김용태가 11일 학내 예지관에서 '재중한인의 자녀교육: 갈등과 통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동덕여대 제공

콜센터에 1만번 전화해 성희롱·욕설 40대 구속

이동통신사 콜센터에 1년간 1만번 전화해 여성 상담원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약 1만번에 걸쳐 통신사 상담원에게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욕설을 일삼았다. /유다혜 기자

기업 기부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여성 고용 활성화 후속책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적용키로

민간 기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처럼 공무원연금을 적용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여성 고용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직장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은 인근 주민 자녀에게 개방되고 공동 직장어린이집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도 국고로 지원해준다.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명문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또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차별이 개선되고 2017년까지 시간제 공무원이 5000명 가까이 채용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윤다혜 기자 ydh@

안전공단, IBA서 은·동상

안전보건공단은 10일 2014 국제비즈니스대상(IBA)에서 공단의 영상물인 '안전행복'이 비디오 부문 은상을, 사외보인 '안전보건'이 출판부문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안전행복' 편은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 등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전보건'은 일터에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현장감을 살린 기획력과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한 스마트 발간시스템이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다.

우체국 '나눔의 행복보험'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은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15일부터 '나눔의 행복보험'을 보급했다고 밝혔다.

'나눔의 행복보험'은 우체국 공익재원10억원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나눔의 행복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시 장례비나 일시적인 유족 생활비로 보험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1년이다.

оверяют бесплатно

초대형 '가슴 풍선' 정체는?

metro Russia

무료 유방암 검진센터

최근 모스크바 고리키 공원에 여성의 가슴 모양을 본 딴 길이 6m의 초대형 풍선이 설치돼 시민이 궁금해 하고 있다.

모스크바 보건국과 러시아 관영방송 제1채널이 공동 기획한 '가슴 풍선'은 내부에서 여성들의 유방암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는 유방암 검진 센터다.

이 검진 센터는 유방암 검사와 함께 유방암의 위험성과 증상, 치료법도 설명하고 있어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곳을 방문한 작가 따찌야나 우스띠노바는 "모스크바에 이 같은 유방암 검진 센터가 마련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환영할 만하다"며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유방암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치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시민 율리야 아나톨리예브나는 "가슴을 끌어안고 있는 이색적인 모양의 풍선이 궁금했다"며 "젊은 여성한테도 유방암이 많이 발견된다니 꾸준히 검사해야겠다"고 말했다.

검진 센터의 무료 검사는 오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예브게니 모루즈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한류 열풍에 한식도 인기

metro HongKong

한류가 아시아 시장을 강타하면서 홍콩에서 한국 드라마와 패션은 물론 음식도 인기다.

홍콩은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4번째로 한국 식품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지난해 4월까지 홍콩의 한국식품 수입액은 9.36억 홍콩달러로 2012년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

가장 인기 있는 식품은 인삼이다. 지난해 인삼 수입액은 2.72억 홍콩달러(약 1235억원)로 2012년보다 47% 늘었다. 올해 1월~4월까지 한국 인삼 수입액은 1.7억 홍콩달러에 달했다.

현지 백화점 관계자는 "7년 전 처음 한국 식품을 도입한 후 매년 약 40%씩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 기자

에볼라 신속 대응반 출동!

미국, 추가 감염자 대비… 어디서든 수시간 내

미국이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 대응반을 꾸린다.

14일(현지시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내 추가 에볼라 감염자 출현 가능성에 대비, 어디서든 수 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대응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토머스 프리든 CDC 소장은 "신속 대응팀은 구성해 몇 시간 내에 환자를 치료하고 확산을 막겠다"며 "병원이 에볼라 의심 환자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에볼라 전문가로 이뤄진 대응반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든 소장은 또한 "신속 대응팀이 일찍 구성됐다면 미국에서 두 번째 에볼라 환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며 안타까워했다.

이번 결정은 병원마다 에볼라 환자를 격리 치료할 시설이 부족하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간호사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에볼라 대처는 병원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월가에서도 에볼라 사태에 주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세계 경제·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의 최대 관심사는 에볼라라고 전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에볼라가 서아프리카 3국을 넘어 인근 국가로 퍼질 경우 2015년 말 세계 경제의 손실 규모는 326억 달러(약 34조 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조선미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호박 보고 감탄하는 미셸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가운데)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가을 수확 행사에서 학생들이 커다란 호박을 따오자 감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홍콩 경찰 – 시위대 충돌

진압작전 40여명 체포

홍콩의 민주화 시위대와 경찰이 15일(현지시간) 오전 충돌했다.

시위대는 전날 정부청사 인근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새로 만들었다. 경찰 수뇌부는 이를 철거하기 위해 투입됐다.

경찰은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위대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진압 작전을 펼쳐 1시간 만에 바리케이드를 해체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45명이 체포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홍콩 경찰은 13일부터 시위대가 도심에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은 시위를 중단하지 않겠다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홍콩 시위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발표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을 계기로 촉발됐다. 전인대는 행정장관 선거 입후보 자격을 1200명의 후보 추천위원 중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2~3명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학생과 교수 등을 주축으로 한 시위대는 이를 보통선거로 볼 수 없다며 거리로 나왔다.

/조선미 기자

“보험시장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금융가 사람들

■ 임성기 교보라이프플래닛 상품·계리 팀장

“보험시장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보험으로 변화해야 한다. 합리적인 보험 소비 환경이 마련돼야 보험사와 소비자가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직접 비교해보고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 보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온라인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임성기(43) 상품·계리 팀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2016년까지 가입자 10만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보험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 팀장은 교보생명에 입사한 2001년부터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사망·연금·변액보험 등 다양한 상품개발 경험을 갖춘 보험 전문가다.

2011년 온라인 보험 태스크포스팀에 합류한 그는 3년 동안 준비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교보라이프플래닛에서 상품개발·계리·부채 관련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임 팀장은 “현재 국내 보험시장은 설계사와 텔레마케팅(TM)을 통한 판매가 대부분”이라며 “이 때문에 소비자는 중간 수수료가 포함된 보험을 가입하면서도 실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기보다 주위의 강요로 가입하는 상황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보험의 임성기 상품·계리 팀장은 합리적인 보험소비 시장이 마련되어 고객과 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팀장은 국내 최초로 온라인 생명보험사에서 상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온라인 상품이 대안…2016년까지 10만명 돌파 목표

그는 “이런 환경에서는 소비자가 실질적 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해지율이 높아 안정적인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 팀장은 온라인 보험상품에 대해 “중간유통과정이 없어 소비자는 기존 보험료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365일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도 중간유통과정인 보험설계사와 텔레마케터가 없다. 대신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을 비교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영업을 개시한 이후 7개월 동안 불완전판매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험상품의 유지율도 96%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일본 사례를 통해 온라인 전용 생보사가 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온라인 생보사 라이프넷의 경우 2008년 출범 첫해 보유계약이 5000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3년 만인 2010년 12월 보유계약이 5만건을 넘어서는 등 설립 4년간 연평균 172.8%의 성장률을 기록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임 팀장은 “일본은 경기침체·저금리, 고용불안으로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해진 상황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 발달로 고객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는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보험시장에서 설계사 없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에는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임 팀장은 “초창기 인터넷 전용 생보사를 준비할 당시에는 온라인 상품이 전무했지만 현재는 10여개의 업체가 온라인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간편히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준히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동시에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병행하면 온라인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석기자 khs

ING생명, ‘고객중심경영 선언식’

ING생명은 14일부터 이틀간 서울과 대전에서 '고객중심경영 선언식'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고객중심경영 선언식'은 영업현장을 지휘하는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모여 고객관리를 항상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고객중심 실천' 의지를 세기는 행사다.

정문국 사장 등 임원진과 지점장·부지점장 등 이번 행사에 참석한 600여명은 선언식에서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고객과의 올바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다 ▲진실된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한다 등을 낭독했다. 이어 이날 행사에서는 고객스마일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전략도 발표됐다.

고객 스마일 프로그램은 고객이 상품에 가입한 후 3개월 이내에 담당 설계사(FC)가 해당 고객을 방문해 다시 한 번 가입 상품을 안내하고 1년, 2년이 되는 시점에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 전략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새로운 고객접촉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이에 대한 교육가 가이드 라인 FC들에게 제공되며, 또 1회용간 진행되는 신입 FC에 대한 교육도 고객관리 부분이 대폭 강화된다. /유현석기자

ING생명은 14일부터 이틀간 서울과 대전에서 정문국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지점장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중심경영 선언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ING생명 제공

market index <15일>

코스피 1925.91 (-3.34) | 코스닥 545.51 (+1.46)
금리 2.28 (변동없음) | 환율 1064.70 (+0.200)

뉴스&뉴스

면접대기 1시간은 기본?

● 면접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취준생 회원 4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7%가 면접대기 시간이 길다고 대답했다. 최대 1시간 이상 대기한 지원자가 43.8%로 1위를 차지했다.

그 이유에 대해 구직자의 31.6%는 '지원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실제로 응답자 중 50.5%는 면접대기 시간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바뀐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수입물가 7개월째 하락

● 수입물가가 7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지만 국제 유가가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수출입 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 지수(2010년 100 기준)는 93.04로 전월보다 1.2% 떨어졌다.

수입물가는 지난 3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었다. 지난달 수입물가 지수는 2009년 5월(89.67) 이후 5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33.24원으로 8월보다 0.8% 상승했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1.94달러에서 96.64달러로 5.2% 떨어진 영향이 컸다. 원유 등 원재료 수입가가 전월보다 2.6% 떨어졌고 중간재(-0.5%), 자본재(-0.6%)도 하락했다. 소비재(0.1%) 수입가만 3개월 연속 올랐다. /김민지기자

연금복권520 제172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2조	775795
		4조	585537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illegible]
4등	100만원	각조	[illegible]
5등	2만원	각조	822
6등	2000원	각조	[illegible]
7등	1000원	각조	4, 5

출처 : 나눔로또 공식홈페이지(www.nlotto.co.k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2길(누하동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회장 남규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2005년 5월 24일 창간/일간신문 서울특별시 가00050

어제는 서초사옥 오늘은 수원사업장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광폭 행보…삼성과의 협업 가시화된 듯

마크 저커버그(사진)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전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회동한 저커버그가 15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했다.

이틀 연속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장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양사의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임원 40여명과 함께 경기 수원의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를 찾았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비롯해 TV, 모니터 등의 제품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저커버그 못지 않은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발걸음을 같이 했다.

업계에서는 페이스북과 삼성의 수뇌부가 연달아 접촉을 했고 페이스북의 주요 임원들이 삼성의 수원 캠퍼스를 집중적으로 둘러본 점 등을 미뤄 두 회사간의 협업 프로젝트가 곧 가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측은 일단 협업과 관련한 답변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삼성의 세계 최강 하드웨어 기술과 13억 유저를 확보한 글로벌 넘버원 SNS 페이스북의 콘텐츠가 융합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삼성의 경우 여전히 기술 우위에 있지만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역시 기술의 상향평준화를 이뤄 단말기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페이스북도 비슷한 처지다. 복병이 등장하면 언제 쇠퇴할 지 모르는 SNS 사업의 특성이자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돼 확실한 우군이 필요하다.

한편 저커버그는 이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소식을 두 번이나 전했다. 먼저 하와이 해변을 약 1000억원에 매입했다. 하와이 군도에서 네 번째로 큰 카우아이섬 북쪽에 있는 필라 해변과 인근 농장 등 약 2.83㎢ 규모의 부지를 사들였다.

이와함께 저커버그는 전 세계적으로 창궐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에볼라 퇴치를 위해 약 266억원을 기부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아과 레지던트인 아내 프리실라 챈과 함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에볼라 퇴치 재단에 기부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성훈기자 zpen@metroseoul.co.kr

'또 떨어졌네' 코스피가 외국인의 계속된 매도에 하루 만에 내림세로 돌아서 약보합 마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약발이 듣지 않았다. 15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34포인트(0.17%) 내린 1925.91로 마쳤다. /연합뉴스

판도라TV 회원정보 유출 한달만에 사과

PANDORA TV

휴대전화 번호 등 7개 항목 털려

국내 유명 동영상 공유 사이트 판도라TV의 11만명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

판도라TV는 지난달 9일과 지난달 17일 이틀간 특정 서버의 외부 해킹을 당하고 이로 인해 회원정보가 유출됐다고 15일 밝혔다. 해킹 발원지는 중국 IP로 확인됐다. 판도라TV는 2004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판도라TV의 총 870만7838건 회원정보 중 745만5074건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열람됐으며 이 가운데 11만4707건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이름, 암호화된 비밀번호,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7개 항목이다. 판도라TV는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비밀번호는 암호화해 이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판도라TV 측은 개인정보 문의 및 피해 신고에 대해 판도라TV 고객센터 이메일(cs@pandora.tv)로 연락하면 답변하겠다고 고지한 상태다.

판도라TV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버 해킹 분석을 요청했고 이튿날 해킹 판정을 받았다"면서 "24일 방통위에 신고했으며 경찰서에 사건을 의뢰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킹 수법 때문에 어느 이용자의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현재로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사당국과 최대한 공조하여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범죄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문경기자 unim@

비용↓ 직원 만족도↑

시간선택제 효과 있다

종업원수가 약 600명인 경북 소재 식품제조업체 B사는 여직원들이 육아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늘자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를 도입했다.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B사는 직원을 더 뽑아야 하고 통근버스 운행 횟수를 늘려야 하는 등 관리비용이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직원 만족도가 높아져 퇴사하는 근로자가 줄었고 신규 채용에 따르는 비용도 감소하면서 총 비용이 줄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기업 10곳 중 7곳이 인력난 해소,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 72개사에 효과를 물었다. 75.0%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해 피크타임 인력난 해소, 생산성 향상, 근로자 만족도 제고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기업은 25.0%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77.8%)과 중소기업(73.3%) 모두 70%가 넘는 기업이 만족했고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9.2%)이 제조업(65.2%)보다 효과를 더 봤다. /이봉준기자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

2014년 11월 27일(목)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metro 주관

티켓 P 20만원 VIP 15만원 R 10만원 S 7만원 A 4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KB사태' 징계 수위·관치금융 질타

금융위 국감, 하나·외환銀 통합·가계대출 대책도 추궁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금융권 국정감사에서 'KB사태'와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부동산 대책 등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의원들은 주전산기 교체 논란으로 촉발된 'KB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 결정이 오락가락했던 점과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해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개월간 금융계의 큰 관심거리였던 KB금융 주전산기 전환 사건의 업무처리 과정을 보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KB사태를 통해 금융당국의 결정이 오락가락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사태는 지주회장과 은행장이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진 낙하산 CEO들의 충돌. 제재의 일관성을 갖지 못한 오락가락한 금융당국.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이사회의 무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의 KB사태를 막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낙하산 CEO임명 방지와 사외이사의 역할, 지주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KB사태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기본 원인"이라며 "이사회와 CEO 그밖의 관련된 사람들이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징계가 상향되는 등 제재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임 회장은 중과실에 의한 감독업무 태만과 KB 경영건전성 훼손 등을 금융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직무정지의 중징계 결정 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상의하거나, 정치권에서 압박하는 등의 외부 역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사 회장과 행장의 분리 겸임에 대해선 "지배구조에 대한 정답은 없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와 관련, 신 위원장은 "현재 경영안정화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회장 선임 앞으로 경영 계획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에 대해선 "노사정이 아닌 노사의 합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서명했고 '노사정 합의서'로 명기돼 있다"고 지적하자 "당시 위원장은 단순 입회자로서 참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면서 가계대출이 두달새 11조원이나 증가한 것에 대해선 "가계소득 개선 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순차적으로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신화기자 @ xxx@metroseoul.co.kr

한국씨티, 씨티캐피탈 판다

은행부문은 철수 안해

한국씨티금융이 계열 여신전문 금융업체인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을 매각할 방침이다.

씨티금융 관계자는 15일 "미국 씨티그룹이 전날 실적 발표에서 한국의 소비자금융 부문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의 매각 방침을 뜻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문은 매각 계획과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존 거스리지 씨티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전날 미디어 컨퍼런스콜에서 일본 등 11개국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을 매각한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는 한국에서의 일부 사업 부문 매각 계획도 포함됐다.

개인신용대출을 주요 업무로 하는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은 상반기 51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을 정도로 수익구조가 악화된 상황이다.

/김보라 기자

우리은행 '문화적금' 출시

매주 수요일 입금액 0.3% 우대금리 적용

우리은행은 '문화가 있는 날'을 홍보하는 취지로 '수요일이 즐거운 iTouch 문화적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지난 1월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스포츠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에 대해 무료 또는 할인 입장이 가능하도록 지정한 것. 우리은행은 지난 8월 금융권 최초로 문화융성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금융상품 개발 및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상품은 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1년제 자유적금 상품이다. 매주 수요일 입금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금리 연 2.1% 외에 추가로 연 0.3%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전국 25개 콘도 무료 1박권 및 워터파크·캠핑장 등의 여행 등 레저시설 이용 할인서비스와 문화상품권 구입할인 카세어링 무상제공 등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제공한다.

/박미란기자

시간선택제 직원과 소통 눈길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14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시간선택제 직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취업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권 행장은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취업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며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제공

中 안방보험, 우리은행 인수 관심 '변수'

교보생명과 경쟁 불가피…금융당국 내심 반겨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우리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15일 금융·보험업계에 따르면 안방보험그룹은 최근 우리은행 경영권 인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현재 경영권 지분(30%)과 소수 지분(26.97%) 모두 투자 대상으로 지목됐다.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자산운용 등 10개 계열사를 보유한 안방보험그룹은 자산규모 120조의 중국 금융 그룹으로 최근 해외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세계적인 호텔 업체인 힐튼 월드와이드로부터 뉴욕 맨해튼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19억5000만 달러에 매입했다.

13일에는 벨기에 FIDEA 보험회사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방보험그룹 측은 "앞으로도 전세계 각지의 보험회사를 인수·합병(M&A)해 고객에게 글로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해외 투자를 시사하기도 했다.

안방보험 측이 우리은행 인수에 성공하면 한국 금융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한국 금융 인프라를 중국으로 이식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당국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이미 3차례 진행된 우리은행 민영화에 실패한 데다 현재 경영권 인수에 관심을 보인 업체도 교보생명 한 곳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0년 10월부터 우리은행을 포함한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2012년까지 매년 진행된 매각공고에서 번번이 입찰 유효경쟁이 무산됐다.

이번 입찰에도 교보생명만 참가하면 경쟁 입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매각이 불가능하다.

교보생명도 안방보험의 인수전 가담에 내부 단속을 하는 등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보생명은 프랑스 악사(AXA)그룹과 컨소시엄을 통한 인수대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수 교보생명 상무는 "우리은행 경영권 인수 공고가 난 만큼 이사회에서 조만간 관련 사항을 검토할 것으로 안다"면서도 안방보험의 우리은행 인수 관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아직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형석기자

금융기관 제재 지연 85건 달해

보험사기로 부당지급 보험금 1000억 넘어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제때 제재를 하지 않은 사건이 최근 5년간 8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지급한 보험금도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사건이 이같은 규모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제재절차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검사서 표준처리 기간을 종합검사는 5개월 내, 부문검사는 4개월 내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2012년 1건, 2013년 16건, 2014년 9월 68건에 대한 제재를 지연했다.

주요 미결정 사안은 2012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건, 2013년 신한은행의 신용정보 부당조회 사건, 한국기업평가를 포함한 신용평가 3사의 부당신용평가 사건 등이다.

올 들어선 한국수출입은행 전력, 대구은행의 정해진 해운관계사 여신취급 부정적 사건, NH농협의 KT ENS 관련 사건, 한국씨티은행의 대출금리 변경 사건 등의 제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또 금감원이 제재조치를 취했으나 해당 금융회사가 2년 이상 이를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정리 조치요구사항'도 이 기간 32건에 이르렀다.

이 중에서 아직도 금융회사가 제재 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건도 무려 17건이나 됐다.

민 의원은 "금감원이 제재결정을 제때에 하지 못해 제재의 적시성이 떨어져 금융감독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제재절차의 지연으로 제재결정의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지급된 보험금 수사적발금액은 1138억원으로 지난 2010년(722억원)보다 57%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2010년 6만9213명에서 지난해에는 7만7112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환수금액은 294억원으로, 비율은 25.8%에 그쳤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보험사기 적발과 환수실적을 높여 보험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대신증권, 장외채권거래 특허 출원

대신증권이 15일 장외채권거래 시스템인 '대신밸런스 RTB 트레이딩시스템'의 장외채권 거래 장치와 일중 수시로 변동되는 장외채권의 금리를 실시간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술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시중 금리를 반영, 장외채권의 금리를 결정하는 기술이다.

이번에 특허를 출원한 기술은 이를 개선해 장외채권시장에서도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장외채권거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대신밸런스 RTB 트레이딩시스템은 출원된 특허를 적용해 대신증권에서 보유한 투자적격 등급 채권 중에서 엄선한 종목을 대상으로 시중금리를 반영한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를 제시한다.

고객은 제시된 호가에 맞춰 장외채권을 유동성 높은 주식처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특히 1000원 단위의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주식매매와는 달리 별도의 증권거래세나 매매수수료가 없다.

이동준 대신증권 트레이딩센터장은 "이번 장외 채권의 금리 결정 방법에 관한 특허는 일중 고정으로 제시되는 금리로 인해 거래가 불편했던 장외 채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지향적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민금융 거점점포 확대 신한은행은 15일 서민금융 거점점포인 희망금융플라자 20곳을 추가해 모두 67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희망금융플라자는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서민계층의 지역사회 미 역할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새로 추가된 창구은 서민고객이 많고 금융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신한은행 제공

"'뮤지컬 보이첵', 함께 보세요"

KB카드, '1+1 예매 이벤트' 실시

KB국민카드는 15일 뮤지컬 보이첵(WOYZECK) 관람 고객을 위해 동반자 무료 초청 예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진행한 '뮤지컬 레베카' 예매 이벤트에 이은 두 번째 문화공연 할인 행사로 KB국민카드 고객은 '뮤지컬 보이첵(WOYZECK)' 티켓 예매 시 동반자 1인 티켓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모두 1000여석 규모의 '원 플러스 원(1+1) 예매 이벤트'는 서울 강남구 LG아트센터에서 오는 31일 오후 8시 펼쳐지는 공연이다.

공연 티켓은 16일 오후 2시부터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1인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좌석별 요금은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이다.

한편 '뮤지컬 보이첵(WOYZECK)'은 독일이 낳은 천재 작가 게오르그 뷔히너의 미완성 희곡이 그 바탕인데 연출가 유효진이 뮤지컬 형태로 바꿨다.

이날 공연에는 배우 김다현, 김소향, 김법래 등이 출연한다.

윤창수 KB국민카드 홍보 팀장은 "'뮤지컬 보이첵(WOYZECK)'은 대형 뮤지컬의 대중화를 위해 일반 뮤지컬에 비해 티켓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돼 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잘 이용하면 보다 부담 없이 뮤지컬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장르와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관피아' 떠나니 '정피아'가…

금융권, 감사·사외이사에 대거 포진

금융권에서 '관피아'(공무원 출신)가 발붙일 곳을 잃게 되자 금융기관 감사 자리에 전문성 없는 '정피아'(정치인 출신) 출신이 대거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에 정치권 출신 감사와 사외이사가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명재 수출입은행 감사는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위원을 맡았다. 박대해 기술보증기금 감사는 친박연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조동회 서울보증보험 감사는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각각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권영상 한국거래소 감사는 2004년 총선에서 경남선대본부장을, 2007년 대선에서 경남선대위 정책본부장을 각각 지냈다. 금융권 경력이 전혀 없다.

예금보험공사 감사는 문제풍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서산·태안 선거대책위원장이다. 예보는 또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출신인 최성수씨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정송학 자산관리공사 감사는 여권 내 호남 몫 인사로 2006~2010년 한나라당 소속 서울 광진구청장을 지내고 2012년 새누리당 공천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증권의 감사 역시 새누리당 논산·계룡·금산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내고 2012년 총선에 출마했던 이창원씨다.

이밖에 앙준오 IBK캐피탈 감사가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였던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몸담았다.

/배상지 기자

경영인 정기보험 출시

KB생명은 15일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무배당 KB골드라이프 경영인 정기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상품은 경영자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비해 기업승계시 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 가능토록 했다.

또 자동이체 할인(0.5%할인), '고액할인(보험가입금액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2.0%, 보험가입금액 5억원 이상' 3.0%), '장기납입할인(37회차 이상~60회차 이내 0.5%, 61회차 이상' 1.0%)도 제공한다.

종신보험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며, 보험가입 후 10년 이상 경과시 연금전환을 통해 연금을 수령받을 수도 있다.

/김형석 기자

이동통신 또다시 속도 경쟁 불붙다

정지상태에선 4G LTE보다 30배 빨라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 시대 개막 예고

단 1초만에 초고화질 영화 한 편을 내려받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 5G 이동통신 기술을 시연하는데 성공해 '초고속 모바일인터넷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15일 시속 100㎞ 이상의 고속주행 환경에서 1.2기가 비피에스(Gbps: 1초 당 150MB 전송)의 끊김 없는 데이터 전송속도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고속의 이동통신 사용환경에서 기가급 5G 이동통신 기술을 시연한 것은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1Gbps 속도의 5G 이동통신 기술을 시연하는데 성공한데 이어 약 1년5개월 만에 고속주행 환경에서도 1Gbps 이상을 시연할 수준으로 기술력을 끌어올린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정지상태에서도 세계 최고속인 7.5Gbps(1초 당 940MB 전송)까지 5G 기술의 전송속도를 끌어올렸다. 이는 현재의 4G LTE 상용망보다 30배 이상 빠른 속도다. 5G는 아직 업계의 공식적인 정의나 표준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4G LTE보다 수신 배에서 최대 수백 배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다. 5G 시대가 열리면 대용량 영화파일을 단숨에 전송하고, 언제든지 초고해상도(UHD)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다.

5G 이동통신은 현재 사용하는 저대역 주파수보다 훨씬 높은 대역의 초고주파 대역을 함께 사용할 전망이다. 초고주파는 저주파 대역의 주파수 부족 상태를 해소할 대안이지만, 전파 손실이 크고 도달거리가 짧다는 게 단점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8㎓의 초고주파 대역에서 '적응 배열 송·수신 기술'을 적용해 기가급 전송속도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창용 삼성전자 DMC연구소 소장(부사장)은 "5G 이동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5G 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 장비 전문업체로 재도약을 천명한 노키아는 오는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릴 동계올림픽에서 5G 이동통신 시연에 나서겠다고 밝혀 통신시장에 속도 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슈퍼카에 CFRP 휠 탑재

2015년부터 양산

현대자동차가 오는 2015년쯤 초경량 휠을 개발해 슈퍼카에 탑재한다.

현대차는 15일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R&D 테크데이에서 CFRP(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로드 휠'을 공개하고 이 휠이 고성능 전용차량 'N' 모델과 슈퍼카에 탑재된다고 밝혔다. 현대자가 슈퍼카에 장착될 부품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품은 휠 림과 스포크에 높은 강성의 CFRP를 적용해 기존 알루미늄 휠보다 가벼우면서 강성을 더욱 높인 것이 특징이다. 동종의 알루미늄 휠 무게가 50㎏인 반면, CFRP 휠은 30㎏에 불과해 40%나 감량됐다. 덕분에 고속주행로 테스트에서 1.2초의 랩 타임을 줄였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휠이 가벼워지면 승차감과 타이어 그립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가감속 성능과 조종응답성도 좋아진다. 현대차는 2015년에 고성능차로 리서치 팀과 유럽기술연구소가 함께 개발을 완료하고 향후 출시할 슈퍼카에 탑재할 예정이다.

/김태욱기자

KT '전우후우 혜택 완결판' 출시 KT는 멤버십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기 제휴처의 할인율을 높인 '전우후우 혜택 완결판'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고객이 많이 찾는 영화관인 CGV는 골드클래스 이용 시 최대 55% 할인(2장 구매 조건 VIP 기준)해주며 CGV 무료 영화 관람(연 6회, VIP), 최대 3000원 현장 할인 등의 혜택도 있다. /KT 제공

'엔진침몰' 주장 SM5 오너, 르노삼성과 합의

결함볼트 정보 제공키로... 구체적 내용은 미공개

지난 5월 29일 SM5 엔진 지지대 브래킷 볼트 파손으로 주행 중 엔진이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던 오너가 르노삼성차(대표 프랑수아 프로보 Francois Provost)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SM5 오너는 14일 자동차 사이트 보배드림 등에 이와 관련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르노삼성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사건 종료시점에 후기를 올리겠다"면서 "르노삼성 측으로부터 이번 사고의 결함볼트 정보를 제공받고, 이후 사측 대응에 대해 후기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갈등을 빚었던 르노삼성 직원이 직접 받은 오해가 커진 것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 품질관리에 노력하겠다는 모습에 합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SM5 오너는 파손 볼트 반환과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공개를 르노삼성 측에 요구했으나,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라 안 된다는 입장을 듣고 다음아고라 청원 및 언론사, 공공기관 제보 등으로 자감결함 내용을 신고했다. 이후 SM5 오너는 법적 소송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이번 합의로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이번에 합의된 중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정의석기자

부산서 ICT의 향연 시작

'ITU 전권회의' '월드IT쇼' 'ICT 프리미어 포럼' 등 20일부터

부산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가 잇따라 개최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CT 올림픽'이라 불리는 'ITU 전권회의'가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ITU 전권회의는 193개국 ICT 장·차관이 참석해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정하게 된다. 4년마다 대륙별로 개최돼 'ICT 올림픽'이라 불린다. 아시아에서는 1994년 일본 교토에 이어 이번에 부산에서 두번째로 개최된다.

올해 ITU 전권회의에는 회원국 장관 150명 등 정부대표 3000여명과 특별행사 참가자를 포함해 국내외 30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개최에서 폐회까지 전 회의과정 주재 및 고위직 선거 관리 감독을 맡는다.

우리나라는 G20, 핵안보정상회의 등에 이어 ICT 분야 최대 최고위급 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ICT 현안 개설 주도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세계 수준의 ICT 전시와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국내 ICT 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창조경제 모범과 한류 문화 전파를 통해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 개최로 인해 약 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이번 ITU 전권회의 주요 안건으로 우리나라 제안 의제가 상정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아태지역 회의에서 'ICT융합'과 '사물인터넷(IoT)'을 의제로 제안했다. 해당 의제는 지역 공동결의로 채택됐으며 이번 ITU 결의안에 채택될 경우 글로벌 시장 형성과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시장 선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20~23일에는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월드 IT쇼 2014'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사상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리는 '월드 IT쇼'는 '꿈을 터치하라(Touch your Dream, Make your WIS)'를 주제로 진행된다.

올해 행사에서는 최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출현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국내외 ICT 시장에 발맞춰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SK텔레콤과 KT·삼성전자·LG전자를 비롯해 국내 ICT 대표 기업은 물론, 퀄컴·시스코·화웨이 등 글로벌 ICT 기업까지 국내외 420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ICT 융합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기가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선 다·중소 벤처기업의 실질적 수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개최한다. 앞서 지난해 열린 월드 IT쇼에선 15개 국가 바이어와 1억7800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기록했다.

이밖에 국내외 정상급 ICT기업의 CEO들 직접 초청해 ICT 미래 전망을 논의하는 '글로벌 ICT 프리미어 포럼' 등 전문행사와 불꽃축제, 토크쇼, K팝 공연 등도 열린다.

/서재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리프킨 "한국, 사물인터넷시대 맞춰 산업기반 혁신해야" 세계적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가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2014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리프킨 교수는 "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아 한국은 통신과 에너지, 수송 분야의 기반시설을 크게 변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숲속의 앨리스'와 코스닥 진격

상장 앞둔 파티게임즈, 신작 공개

연내 코스닥 상장이 결정된 모바일게임 개발사 파티게임즈가 세 번째 자체개발 신작을 공개하며 기세를 이어갔다.

파티게임즈는 15일 서울 논현동 앤유하우스에서 '숲속의 앨리스 포 카카오(for Kakao)'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소개와 사업 전략 등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숲속의 앨리스'는 파티게임즈의 히트작인 '아이러브커피' 개발한 핵심 개발진의 신작이다. 동화풍의 그래픽과 아기자기한 스토리가 특징인 소셜네트워크게임(SNG) 장르다.

'숲속의 앨리스'는 게임의 메인 장소가 되는 '휴랜드'를 중심으로 주인공을 따라다니는 캐릭터 '미니언'을 모아 위기에 빠진 마법의 숲을 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숲에서 몬스터 '무니'와 싸우는 역할수행게임(RPG) 요소도 갖추고 있다.

특히 모바일게임 최초로 도입한 오프라인 소셜 기능 '미니언 쉐이크'가 눈길을 끈다.

시도때도 없이 날아오는 주천메시지로 게이머들을 괴롭혔던 기존 SNG와는 달리 오프라인에서 만난 친구·지인과 휴대전화를 흔드는 것만으로도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대형 파티게임즈 대표는 "'숲속의 앨리스'를 통해 SNG의 색다른 재미를 알리고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겠다"며 "추가로 3~4종의 게임을 발표해 다가오는 상장과 이후의 성장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숲속의 앨리스' 출시 한달 이내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할 경우 게임 내 미니언 탈을 쓰고 인증샷을 남기겠다"고 공약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파티게임즈는 7월 10일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 11월 상장을 준비중이다.

/[illegible]기자

나진-하산 프로젝트 내달 항해

현대상선·포스코, 벌크선 투입 사업성 검토

남북한과 러시아 3각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시범운송이 다음달 시작된다. 우리 측 컨소시엄인 포스코와 현대상선은 벌크전용선 한 척을 나진-포항 항로에 투입해 본격적으로 사업성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곡물, 석탄, 광석 등 비포장된 건화물을 运송하는 벌크선

포스코는 러시아에서 연간 200만t가량의 석탄을 도입하고 있다. 이중 일부를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들여올 계획이다. 러시아산 석탄 운송은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지방 하산에서 나진항까지 54㎞ 구간은 철도를 이용하고 나진-포항 간은 해상 운송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5·24 대북 경제제재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북 직접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 측 지분을 활용해 간접 투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포스코, 현대상선·코레일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8년 북한과 러시아가 각각 30%, 70% 출자해 설립한 합작기업 라선콘트란스의 러시아 측 지분 50%를 사들였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15일 "나진 항만의 접안시설에 맞춰 전용선 크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기존 항로에 철광석, 석탄 전용선이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는 어렵고 제3국에서 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나 중국 선박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illegible]기자 [illegible]

"협력사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한상범 LGD 사장, 2차 협력사 대표와 간담회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차세대 TV인 OLED TV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에 앞서 협력사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다.

한상범 사장은 지난 14일 대구시 성서공단에 위치한 2차 협력회사인 거림테크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텍, 동서전자 등 7개 2차 협력사 대표들도 함께 참석했다.

한상범(왼쪽) LG디스플레이 사장이 2차 협력사인 거림테크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제공

이번 방문은 LG디스플레이가 시행하고 있는 동반성장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협력사의 애로사항과 아이디어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 사장은 "LG디스플레이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이어갈 수 있는 바탕에는 협력사와의 긴밀한 상생이 자리잡고 있다"며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LG디스플레이의 경쟁력으로 협력사가 세계 일류 수준의 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OLED 시장에서 다시 한 번 큰 힘을 발휘해야 하는 만큼 상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경영진이 직접 협력사를 방문해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경영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혁수기자 [illegible]

직원이 고객… 좋은 아파트라면 서로 '찜'

대림산업 직원이 아크로타워 스퀘어 임직원 전용 상담실을 찾아 분양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미분양 떠넘기기? 직원들이 분양상담에 더 적극적
내 집 마련 자금 부담 줄어든 상태에서 구매 의욕↑

최근 들어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찾고 있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전자회사나 자동차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일은 흔했다. 그러나 가격과 생활권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내 집 마련의 특성상 자사 아파트에 거주하는 건설사 직원은 많지 않았다.

1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건설사들이 자사 임직원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속적인 분양가 하락과 금리 인하로 자금 부담이 줄어든 상황에서 자사 아파트에 대한 임직원의 구매 의욕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이 같은 임직원 대상 마케팅은 미분양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곤 했다. 그러던 것이 분양시장 호조로 분위기가 반전되며 직주근접형 입지를 갖췄거나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에는 직원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사내 상담부스를 만들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가치를 먼저 인정한 아파트는 일반 고객에게도 인기가 높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임직원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9월 말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동에서 공급한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는 서초 삼성타운에서 걸어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분양 전부터 삼성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삼성 임직원 전용 게시판에 올린 분양 소개 글의 조회건수만 1만여 건에 달했고, 임직원 관심고객 등록건수도 1500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인기는 청약 경쟁으로 그대로 이어져 평균 71대 1, 최고 199대 1이라는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대림산업은 서울 영등포에 짓는 '아크로타워 스퀘어'의 17일 견본주택 개관에 앞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분양상담 서비스를 진행했다. 9월 중순부터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 분양팀에서 임직원 전용 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600명가량이 관심고객으로 등록했다.

행사를 진행한 손병락 아크로타워 스퀘어 분양소장은 "여의도를 비롯해 도심·강남 접근성이 좋은 입지적 장점을 임직원이 먼저 알고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9·1대책 이후 투자환경이 좋아지면서 실수요는 물론 투자까지 생각하는 직원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GS건설도 이달 말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도시 A21블록 '미사강변 센트럴 자이' 공급을 앞두고 그룹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분양설명회를 가졌다. 이날에만 약 700명이 관심고객으로 등록한 여세를 몰아 오는 19일 대치동 자이갤러리에서 2차 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이선옥기자 psc1326@metroseoul.co.kr

시흥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개발

한라, 총 6700가구 중 1차 물량 2701가구 이달 분양

한라가 일명 서울대 신도시로 불리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의 개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라는 시흥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C3블록에서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 1차 물량을 이달 말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40층, 12개동, 전용면적 71~138㎡ 2701가구로, 향후 3차까지 공급이 완료되면 총 6700가구의 대단지가 완성된다.

한라비발디가 들어서는 특별계획구역은 한라가 시흥시와 지역특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2018년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개교할 계획으로 민·관 학이 연계된 대규모 사업이다.

구역 내 서울대와 연계한 공교육 혁신 시범 초·중·고교가 들어설 예정이며, 한라비발디 입주민은 근거리 우선배정에 따라 해당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통학하게 된다. 아울러 아파트 안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문을 열 계획이다.

한라는 이 같은 교육호재에 힘입어 입주민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녀들을 위한 별동의 스터디센터를 조성, 'Do Dream 멘토링'을 실시한다. 조선에듀케이션과 소그룹 스터디, 학습지도, 진로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는 전교 1등의 책상'을 콘셉트로 공부방 특화평면을 적용한다. 기본형 책상과 집중력 향상을 위한 독서실형 책상, 공부방에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대면형 책상 등을 수요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개통 예정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대학교 본교까지 2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KTX 광명역이 차량으로 20분 거리다. 신세계사이먼의 대형 쇼핑시설인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예정)'도 가깝다. /이선옥기자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 투시도

SK가스, 사우디 합작 PDH공장 가공식 SK가스는 15일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을 원료로 해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SK어드밴스드 울산 PDH 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SK어드밴스드는 자본금 4000억원 규모로 지난달 SK가스와 사우디 아라비아 석유화학업체 APC가 가스화학사업을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SK가스 제공

10월 전국 주택사업환경지수 '157.6'

3개월째 상승…수도권 조사 이래 최고치

10월 전국 주택사업환경지수(HBSI) 전망치가 157.6을 기록하며 3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5일 발표한 10월 HBSI에 따르면 서울이 166.7로 지난달보다 23.4p 오른 것을 비롯해 경기 161.6(9.5p 상승), 인천 144.8(14.4p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과 수도권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HBSI는 조사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HBSI는 기준값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경기가 나빠질 것이란 답변이 많다는 의미다.

주산연은 올해 10월 미분양지수는 37.4로 최저치, 분양계획지수(136.6)와 공급가격지수(143.6)는 최고치를 기록해 미분양 감소와 분양시장 호조세가 기대되고 있으나 공급가격지수의 상승이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가격과 주택거래 증가 등 시장지표 역시 주택경기 회복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확대 등 임차시장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임차가구의 자가구매 촉진을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은 한계가 있어 임차시장 불안정 해결을 위한 주가적인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지역주택 시장의 사업환경지수는 세종, 대구, 울산, 인천, 경기, 충북, 대전, 전남, 광주, 경남, 부산지역이 상승했고, 충남, 전북, 경북, 강원, 제주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지역은 경기 161.6(9.5p↑), 인천 144.8(14.4p↑), 충북 119.0(4.8p↑), 대전 115.6(3.4p↑), 세종 113.0(20.5p↑), 전남 109.8(9.8p↑), 광주 126.2(10.4p↑), 대구 130.9(15.4p↑), 울산 124.4(15.3p↑), 경남 128.3(3.9p↑), 부산 127.8(5.8p↑)등 이다.

하락지역은 충남 126.7(-2.9p↓), 전북 102.5(-4.2p↓), 경북 115.6(-4.4p↓), 강원 102.6(-7.8p↓), 제주 105.0(-10.6p↓)등 이었다.

/김두탁기자 kimdt@

SCREEN

영화의 발견

SCREEN

Weekly Magazine

에네스 카야 | 영화 방송인

하헌 | 만화평론가

허남웅 | 영화평론가 기자

"가을 나들이…'엄마표 도시락' 만드세요"

청명한 하늘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은 운동회와 소풍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깔끔하게 포장해주는 테이크아웃 음식점과 도시락 전문점 때문에 엄마가 손수 싼 도시락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엄마표 도시락'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최고의 자랑거리이자 일품요리다.

◆ 연어김밥 · 연어샐러드

연어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와 단백질이 풍부한 '브레인푸드'다. 또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D와 마그네슘이 다량 함유돼 성장기 아이들의 간식으로 안성맞춤이다.

사조해표의 '사조연어'는 100% 자연산 연어를 사용해 연어의 맛과 영양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연어캔이다. 야외 활동 때 김밥에 연어만 추가해 영양만점 메뉴로 변신한다.

연어와 다진 양파·마요네즈를 함께 버무린 후 김에 밥을 올리고 계란·오이·단무지와 잘게 썬 파프리카를 올린다. 그 위에 버무려 놓은 연어를 적당량 넣은 후 내용물이 나오지 않게 잘 말아주면 건강간식 연어김밥이 완성된다. 연어캔은 샐러드에 곁들여도 좋다.

◆ 두부 치킨 버거

콩은 필수 영양분인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해주는 음식이지만 아이들이 유독 먹기 어려워하는 음식 중 하나다. 두부를 활용하면 콩을 싫어하는 아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영양 가득한 간식을 만들 수 있다.

풀무원의 '잘 부서지지 않아 요리가 쉬워지는 두부'는 일반 두부보다 부서짐이나 으깨짐을 개선해 활용도를 높인 제품이다. 이 제품을 이용해 만드는 '두부 치킨 버거'는 두부·닭다리살·양파를 잘게 다진 후 양파만 볶아 3가지 재료를 골고루 섞어 패티 모양으로 빚는다. 패티를 노릇하게 구운 후 햄버거빵 한 쪽에 허니머스터드와 마요네즈를 바른 후 양상추·토마토·양파·패티·햄버거빵 순으로 올리면 완성이다.

◆ 호두강정

견과류에는 비타민 B1과 무기질이 풍부해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흔히 '두뇌 간식'으로 불린다.

대표적인 호두를 강정으로 만들어 보자. 먼저 호두는 끓는 물에 넣어 중불에서 5분간 삶아준다. 삶은 호두의 수분이 날라가는 동안 후라이팬에 갈색설탕과 백설탕·물을 넣고 중불에서 끓여준 뒤 삶은 호두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시럽이 연보랏 때까지 졸여준다. 졸인 호두를 튀김 온도보다 조금 낮은 온도의 기름에 튀겨주면 된다. 이 때 설탕보다 열량이 4분에 1에 불과한 올리고당을 활용하면 좋다.

◆ 매실에이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탄산수를 활용하면 지나친 당분이나 카페인 섭취를 줄일 수 있는 건강한 '홈메이드' 음료를 만들 수 있다. 물보다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탄산수는 다양한 레시피를 활용해 나만의 음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이트진로음료'의 '디아망'은 세계적 권위의 식품 품평회인 '몽드셀렉션'에서 4년 연속 탄산수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디아망 플레인'에 매실액과 꿀을 넣고 섞으면 소화기와 피로 회복에 좋은 매실에이드가 완성된다.

/정해림기자 seramo@metroseoul.co.kr

뉴스&뉴스

뚜레쥬르, 모닝세트 출시

◆ 뚜레쥬르는 15일 저렴한 가격의 토스트 또는 핫샌드위치와 커피로 구성된 '모닝세트' 7종을 출시했다. 모두 주문 즉시 구워 제공하며 대표 제품은 곡물빵에 땅콩버터와 딸기잼을 발라 구운 '모닝 딸기가득 피넛버터 토스트'와 쌀을 넣어 만든 머핀에 달걀과 햄·치즈소스로 맛을 낸 '오믈렛 라이스머핀', 올리브빵에 햄과 베이컨·치즈를 넣은 '올리브가득 햄&베이컨 샌드위치 세트' 등이다.

KT&G 3분기 수출 48% 증가

◆ 국내 토종기업인 KT&G(사장 민영진)의 3분기 수출담배 판매량이 전년동기보다 약 50% 증가했다. 15일 KT&G가 발표한 잠정실적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수출담배 판매량은 87억 개비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했으며, 올해 누적으로도 49% 상승했다. 3분기 수출을 지역별로 보면 중동·중앙아시아 등에서 69% 증가했으며 아태·미주 등 신규시장에서도 27% 늘어나 해외시장에서 골고루 성장하면서 글로벌 5위 기업에 올랐다.

W몰, 제주 힐링여행 호평

● 가산 패션타운의 대표적인 아울렛인 'W몰'이 입점 브랜드 전 매니저를 초청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행사는 W몰이 매니저들이 본인의 인터에 만족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매니저 기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전 브랜드 매니저를 초청하여 바쁜 일정에서도 제주여행을 단행하는 통큰 면모를 보였다. 행사엔 이윤신 회장이 깜짝 방문했다.

"게르마늄 비누 드려요"

강강술래, 환절기 피부 힐링 이벤트 전개
곰탕·돈가스·쇠고기육포 등 3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갑자기 차가워진 기온과 건조해진 날씨 때문에 피부질환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 아토피 피부질환에 뛰어난 효능을 지닌 '엠플러스케어 게르마늄 비누'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 천연 미네랄과 고순도 게르마늄을 나노바이오공법으로 합성해 피부세포 보호 및 트러블 적용력을 높일 수 있고 강력한 원적외선 음이온 및 산소가 발생해 피부 노폐물 제거와 중금속 배출 효과가 뛰어나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게르마늄 비누 1세트(9만9000원)를 증정한다.

전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보양식 100% 한우사골곰탕 소용량 선물세트(350㎖·6팩·10인분)는 2만2500원, 대용량 선물세트(800㎖·5팩·15인분)는 3만85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100% 국내산 돼지 등등심과 자연치즈를 사용한 등등심돈가스(3세트·2.16㎏·3만1500원)와 모짜렐라돈가스(3세트·2.16㎏·3만78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50g×6봉·2만5800원)도 각각 30% 할인판매한다.

강강양념구이(520g)와 한우불고기(500g), 한돈양념(500g), 돼지양념(500g)으로 구성된 나들이세트는 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 이달 말까지 40% 할인된 6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정해림기자

"스포츠 즐기면서 찍는다"

액션캠·셀카봉 인기

레저스포츠를 즐기면서 셀프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액션캠, 셀카봉 등이 주목받고 있다.

옥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0원에만 액션캠 판매가 전월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 인기 제품인 아몬의 '마이쏘우 액션캠(사진)'은 삼각대 등을 이용해 일반 촬영도 가능하다.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돼 있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자동의 촬영화면을 전달하거나 가까운 거리에서는 원격 조정할 수 있다.

또 셀카봉은 나홀로 여행족 사이에서 인기다. 그동안 패러글라이딩이나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할 때 촬영용으로 각광받았으나 최근 풍경과 인물이 함께 담긴 사진을 찍을 수 있어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11번가에서는 지난해 보다 셀카봉 판매가 2830% 상승했으며, G마켓에서는 2121%나 판매율이 급증했다. /김수정기자

'新 CI 도입'·저지방 라인 세분화

매일유업(대표 김선희)이 6년만에 CI를 변경하고, '매일우유 저지방&고칼슘 2%'를 출시하면서 업계 최초로 백색우유의 저지방 라인'을 세분화했다고 15일 밝혔다.

매일우유 측은 '저지방&고칼슘 2%'의 출시와 동시에 무지방(0%)부터 저지방(1%, 2%) 일반우유(4%)까지 4가지의 세분화된 라인을 보유하며 저지방우유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새롭게 내 논 '저지방&고칼슘 2%'는 지방은 반으로 줄이고 칼슘은 두 배로 높여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한다.

특히 저지방 우유에서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우유 본연의 고소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저지방 우유를 시작할 수 있는 만 2세 아이부터 온 가족이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매일유업은 새로운 CI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매일유업의 영문명 'Maeil'을 대표하는 M자 마크는 기업의 모티이자 유업의 기반이 되는 '목장 지붕'에서 형태적인 모티프를 가져와 본질을 잊지 않고 유업에서 비롯된 전문성을 계승하고자 하는 매일유업의 의지를 표현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정해림기자

가정으로 들어온 'NASA의 우주기술'

'템퍼 매트리스' 세계 유일 인증· 공기청정기·화장품 제품도

올해 설립 56주년을 맞은 미항공우주국(NASA)은 그동안 우주과학 분야에 많은 업적은 물론 관련 기술 개발뿐 아니라 기술의 민간 이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미항공우주국(NASA)과 비영리단체인 스페이스 파운데이션(Space Foundation)은 인류 삶의 질을 첨단 우주과학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기술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인증을 획득한 제품들을 통해 가장 진보한 우주과학기술을 실제 가정생활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NASA 기술인증 받은 템퍼

먼저 프리미엄 매트리스 브랜드 템퍼(TEMPUR)는 NASA가 개발한 신소재를 상용화한 제품으로 유명하다. 전세계 침구류 중 유일하게 'NASA 기술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브랜드이다. 템퍼폼이라 불리는 이 소재는 1970년대 NASA의 에임즈(Ames)연구소에서 우주선 이륙 때 발생하는 엄청난 가속력과 압력으로부터 우주비행사가 받는 충격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됐다. 탄성이 거의 없는 점탄성(Visco-elastic)의 성질로 주어지는 압력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덴마크 화학자 아이지 크리스티안센(Age Kristiansen)에 의해 3만여 회가 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고밀도와 내구력에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템퍼 폼'으로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상용화의 성공으로 1991년 일반 매트리스 위에 설치할 수 있는 템퍼 타퍼(TEMPUR Topper·사진)가 처음으로 출시되면서 우주과학을 실생활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신소재인 '템퍼 폼'이 적용된 템퍼 매트리스는 잠자는 동안 신체에 주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 최소화하고 압력을 되돌려주지 않아 장시간 누워 있어도 편안한 수면 환경을 제공한다. 또 템퍼 소재는 수십억 개의 오픈 셀(Open Cell)구조로 이루어져 매트리스에 누웠을 때 체온과 무게에 반응, 개인의 체형에 맞게 완벽하게 올딩된다.

템퍼 관계자는 "매트리스에 NASA의 과학이 적용되고 이를 공식 인증 받은 것이 고객들에게는 신뢰를 줘 인기를 얻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템퍼는 '나사 인증 16주년'을 맞아 오는 19일까지 할인과 사은행사를 벌인다.

◆우주선 공기정화 기술적용 청정기

우주선내의 유해 가스와 세균 등을 제거하고 청정한 공기상태를 만들기 위해 개발된 기술은 공기청정기로 상용화됐다. 이 시스템은 이산화 티타늄을 이용한 특수 셀과 특수 UVX램프를 이용해 각종 유해가스 및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 RCI기술이다.

미로퀘스트 공기청정기는 이 기술을 적용, 정화이온인 OH 래디칼-과 산화수소 이온 산소 이온등을 생성하고 각종 유기 화합물들을 분해하면서 물과 산소로 변환 시켜준다.

◆화장품에도 NASA의 기술이

NASA 연구진들은 인간 세포를 가상 무중력 상태에서 증식하도록 하는 '회전 벽 생물반응기'라는 장치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지금에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사용됐으며 치료제뿐 아니라 화장품에까지 활용되고 있다.

제약 R&D 기업 아리바이오의 브랜드인 '에포라(EPFORA)'는 국내 미생물 발효 기술과 NASA의 무중력 배양기술을 응용한 신개념의 고기능성 화장품으로 2012년 하반기에 출시된 후 지난해 6월 우주기술 인증 제품으로 지정됐다.

/김민정기자 ume@metroseoul.co.kr

푸석한 모발 단백질로 매끈하게

환절기 수분 코팅으로 윤기 더하기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피부뿐 아니라 모발까지 건조해진다. 수분이 부족한 머리카락은 정전기로 표면이 손상되기 쉽고, 이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모발의 큐티클과 단백질층이 파괴돼 머리카락은 더욱 가늘고 약해진다. 환절기 손상된 모발에 볼륨과 윤기를 더하는 관리법을 소개한다.

건강하고 탄력 있는 머릿결을 위해서는 모발을 구성하는 단백질 성분을 보충해줘야 한다.

평소 식물성 오일이나 단백질 등의 영양 성분이 풍부한 헤어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바르고 나서 바로 씻어내는 샴푸·린스보다 일정시간 방치해 두는 트리트먼트가 더 효과적이다.

헤어 트리트먼트는 머리카락의 물기가 살짝 제거한 뒤 두피를 피해 모발에만 바른 뒤 3~5분 정도 지나 깨끗이 헹구내면 된다. 트리트먼트가 도포된 상태에서 뜨거운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으면 흡수력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3회 사용한다.

단백질로 모발 속을 채워줬다면 수분으로 영양과 윤기를 꽉 잠궈줄 차례다. 모발이 수분을 잃어버리면 건조하고 푸석거려 스타일링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평소 샴푸, 트리트먼트 등을 고를 때 수분이 풍부한 제품을 골라야 한다. 특히 트리트먼트의 경우 모발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수분 코팅 기능을 가진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좋다.

청담동 유명 헤어 아티스트 박하수 원장은 "환절기 푸석한 모발은 집에서 간단한 케어만으로도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며 "푸석한 머리카락에 수분 코팅막이 형성되면 엉킴도 해결되고 볼륨감도 살아난다"고 전했다.

/박지원기자

취업문 '면접룩'으로 뚫자

직종별 스타일링 팁

10월 본격적인 취업 시즌이다. 갖은 서류 전형을 통과한 후 맞게 되는 마지막 관문인 면접은 취업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한다.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고 높은 취업문턱을 넘기 위해서 직종에 맞는 스타일링 전략이 필요하다.

◆보수적인 기업은 포멀한 수트

보수적인 기업의 면접을 앞뒀을 땐 포멀한 디자인의 수트로 단정한 느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펠(상의 깃)이 넓지 않은 재킷을 선택해 세련되고 일신 이미지를 연출하고 화이트 셔츠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다. 이때 블루 컬러의 넥타이를 하면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영업직처럼 외부미팅이 잦은 직종에 지원한다면 활동적인 룩을 연출해야 한다. 그레이 컬러와 체크 패턴이 어우러진 레노마 수트에 폴라워 패턴 넥타이와 스카이 블루 셔츠를 매치하면 위트 있는 면접룩이 완성된다.

◆남다른 스타일로 개성 어필

패션, 광고, 디자인 직종의 면접룩은 격식은 갖추되 스타일리시한 면모를 은근히 드러내야 한다.

창의적인 시고와 본인의 개성이 중시되는 직종인만큼 패턴·컬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화이트 셔츠, 그레이 톤의 재킷, 카우플라주 패턴의 니트 등은 담담하면서 트렌디한 느낌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

톡톡 튀는 패턴 온 패턴 면접룩도 추천할 만 하다. 체크 패턴 재킷 안에 카우플라주 패턴 니트를 입으면 면접관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패션브랜드 관계자는 "면접룩을 연출할 땐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의의 경우 목, 어깨 등이 잘 맞는지 확인하고 재킷 밖으로 셔츠 소매가 1.5cm정도 나오게 팔 길이를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뉴스&뉴스

이마트 '데이즈' 스포츠 라인

● 이마트의 의류 브랜드인 '데이즈(Daiz)'가 16일 요가·피트니스·러닝 등 패션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스포츠 웨어 전용라인인 '데이즈 스포츠'를 런칭한다. 데이즈 스포츠는 가을, 겨울 시즌 총 105가지의 스타일의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을 사로잡을 주요 전략상품으로 이마트와 효성이 공동 개발한 '웜 스트레치(Warm Stretch)'를 기획했다.

리바이스, 청바지 특별전 후원

● 글로벌 데님 브랜드 '리바이스'는 15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이 주최하는 '청바지 특별전'에서 리바이스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를 공개한다. 리바이스는 세계 최초의 청바지를 소개한 리바이스의 설립자인 리바이스트라우스의 생가 박물관에서 가져온 청바지와 초창기 리바이스 광고부터 당시 리바이스를 착용한 사람들의 사진과 광고 포스터등을 만나 볼 수 있다.

네파 '커스텀 구스다운' 출시

●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는 독자적인 기술인 '엑스 볼륨 시스템'을 적용해 보온성과 볼륨감을 높인 '커스텀 구스다운'을 출시했다. 1년 6개월간 50여 차례의 시가공·테스트를 거쳐 개발한 '엑스 볼륨 시스템'이 적용된 다운 재킷이다. 다운 충전재 사이의 공기 손실을 최소화해 온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기술로 차가운 외부 환경에서도 보온성을 강화해준다.

맑은 눈으로 밝은 점수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9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은 컨디션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로 무엇보다 눈에 신경 써야 한다. 눈이 피로하면 무기력함이 생기면서 집중력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책과 눈의 거리를 3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안구 건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또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눈을 감은 상태로 눈동자를 움직이는 안구운동을 자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눈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업체 디앤엑스플러스(대표 차지은)의 '비전 스마트 슈프림'이 있다. 제품은 블랙 커런트(Black Currant)를 원료로 하고 있는데 블랙 커런트는 검붉은 빛깔의 열매로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비타민E 등 항산화물질이 풍부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현재 회사는 현재 쇼핑몰 유스랩(www.youthlab.co.kr) 등에서 제품을 15% 할인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문의: 1544-0760

/황여울기자

'마데카솔 구급가방' 보내드려요~

동국제약(대표 이영욱)이 나들이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제3회 마데카솔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 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회사의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회사는 캠페인 참여를 신청하는 전국 보육시설 1000곳에 휴대용 구급가방을 후원한다. 파우치 형태의 구급가방에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연고'를 비롯해 밴드와 거즈·반창고 등 구급용품이 구비돼 있어 소풍이나 현장학습 등 야외활동 때 유용하다.

캠페인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마데카솔 브랜드 사이트(www.madecassol.co.kr) 이벤트 게시판에서 진행된다. 또 회사는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이름으로 캠페인 참여 신청을 하면 자녀의 이름으로 해당 보육시설에 구급가방을 보내줄 예정이다. 문의: 080-550-7575 /황재용기자

호텔에서 즐기는 '핼러윈'

신라스테이 동탄, '달콤 오싹 패키지' 선봬

핼러윈 데이를 맞아 달콤한 트릿(Treat)과 함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신라스테이 동탄은 최근 에버랜드 핼러윈 축제와 함께 달콤한 마카롱을 즐길 수 있는 '달콤 오싹 핼러윈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패키지는 핼러윈 축제가 한창인 에버랜드에서 다채로운 즐거리와 함께 피크닉을 만끽한 후 호텔에서 기분 좋은 휴식을 취하며 달콤한 마카롱을 맛볼 수 있는 패키지다.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2매와 스탠다드 객실에서의 1박, 카페 이티제의 프리미엄 마카롱 '비쥬 드 파리' 5구(1set)가 포함된다. 객실은 특1급 호텔 수준의 고급 침구와 고급 어메니티인 아베다(AVEDA)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패키지 가격은 15만9000원(10% 부가세 별도)이며 주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한편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인근에 오픈한 신라스테이 역삼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뷔페 레스토랑 '카페(Cafe)'에서 주중 디너 뷔페 이용 고객에게 뷔페와 잘 어울리는 프리미엄 와인 라비에이유 페름(LA VIEILLE FERME) 1병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문의: (02)2230-3000

/최영하기자 http://blog.metroseoul.co.kr

가을, 호흡기 질환 조심!

외출 때 마스크 착용해야

아침과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찬 공기에 취약한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조영주(사진) 이대목동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로부터 가을철 호흡기 질환에 대한 주의사항을 들어봤다.

먼저 가을은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 가장 심할 때다. 발작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이 주요 증상이며 가장 큰 원인은 꽃가루다. 감기와 비슷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축농증이나 중이염, 천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질환이 발생하면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가을철 감기에서도 그중 '콕사키 바이러스'나 '에코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를 조심해야 한다. 가을엔 천식도 악화되기 쉽다. /황재용기자

한국인 10명 중 9명 혈전 위험성 몰라

바이엘 헬스케어, 20개국 인식 조사 실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혈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엘 헬스케어는 최근 한국을 포함한 20개 국가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혈전 질환 인식 정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국인 응답자들의 혈전 질환 인지 정도는 다른 국가 응답자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질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혈전 질환인 정맥혈전색전증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의 무려 72%가 정맥혈전색전증의 한 종류인 심부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 중 적어도 하나를 알고 있었다. 또 응답자 중 41%는 이 두 질환을 모두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20개국 전체 응답자가 같은 질문에 답한 결과(3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하지만 한국인 응답자들은 혈전 질환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 ▲에이즈 ▲혈전 질환 ▲유방암 ▲전립선암 중 생명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가 교통사고를, 19%가 에이즈를 꼽았다. 반면 혈전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판단한 응답자는 11%에 그쳤다.

그렇지만 혈전 질환은 서구사회에서 매 37초마다 한 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며 유럽에서 연간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교통사고·에이즈·유방암·전립선암으로 사망한 사람 수를 모두 합친 것의 3배에 달한다. 즉 한국인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혈전 질환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혈전 질환의 증상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았다. 특히 폐색전증의 자각 증상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10명 중 8명(83%)은 모른다고 답했다.

혈전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말하며 혈전증이란 혈전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을 말한다.

/황재용기자

"순수하고 요염한 덕이, 궁금하세요?"

'마담 뺑덕'으로 첫 주연 맡은 **이 솜**

새롭고 다양한 감정에 끌려 선택
청순함과 욕망 뒤섞인 캐릭터 소화
"모델과 배우는 표현하는 즐거움"

소녀의 순수함과 악녀의 요염함을 동시에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이솜(24)이 '마담 뺑덕'을 선택한 것은 상반된 모습을 지닌 역할을 통해 배우로서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모델 출신 배우'라는 수식어를 떼고 진짜 배우로 성장하기 위한 과감한 선택이었다.

'마담 뺑덕'은 효를 다룬 고전 '심청전'을 욕망의 텍스트로 변주한 치정극이다. '심청전'의 심학규와 뺑덕어멈의 이야기를 비틀어 순수한 사랑이 욕망이 되고 집착과 애증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렸다. 뺑덕어멈에서 모티브를 따온 주인공 덕이는 순수함에서 비롯된 뜨거운 사랑과 차가운 배신을 동시에 겪으면서 복수와 애증의 마음을 갖게 되는 인물이다. 이솜은 덕이가 지닌 "새로운 캐릭터와 다양한 감정"에 끌렸다.

"그 동안 보여준 이미지와 다른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임필성 감독님과의 작업, 정우성 선배님과의 호흡은 어떨지 기대감도 있었고요. 시나리오가 어떻게 완성될지, 현장 분위기는 어떨지에 대한 전체적인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솜은 '마담 뺑덕' 속 덕이의 감정 변화를 3막으로 나눠서 이해했다. 1막이 처음 느끼는 사랑의 감정에 모든 것을 내던지는 순수한 덕이의 모습이라면 2막은 8년의 시간이 흐른 뒤 복수를 위해 학규(정우성)에게 접근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3막은 애증에 사로잡힌 덕이의 마지막을 담고 있다.

"초반부의 덕이는 재미있게 촬영했어요. 촬영 초반이라 적당히 긴장도 되고 재미있었죠. 현장의 긴장감 때문에 학규를 향한 덕이의 설렘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마지막 3막의 덕이였어요. 촬영을 하면서 덕이를 점점 이해하게 되다 보니 애증의 감정도 잘 와 닿더라고요."

쉽지 않았던 것은 욕망과 집착이 뒤섞인 복수심을 드러내는 2막이었다. 그 복잡한 감정의 서막을 여는 베드신은 "배우로서도 여자로서도 고민이 되는" 장면이었다. "시나리오를 볼 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신이었어요. 덕이가 학규에게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중요한 감정이니까요. 후반부의 덕이를 예고하는 느낌도 있고요." 쉽지 않은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임필성 감독과 정우성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 힘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웠다. "처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죠. 스스로를 조금 더 알 수 있게 됐고요."

이솜이 '마담 뺑덕'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덕이가 학규의 딸 청이(박소영)와 위이는 감정적인 관계였다. 아빠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청이가 덕이에게 일종의 모성애를 느끼는 장면들이다. 학규를 향한 덕이의 애증 못지않게 깊은 감정을 담은 신들이지만 완성된 영화에서는 아쉽게 삭제됐다.

"또 다른 사랑의 감정이죠.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어요. '우와, 이것도 내가 해보지 않았던 연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장에서는 힘들지라도 그 감정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함이 있었고요. 완성된 영화에 담기지 못해 아쉽기도 해요. 하지만 그 장면들이 그대로 담겼다면 또 어떤 반응이 나왔을지 궁금하네요(웃음)."

이솜은 '마담 뺑덕' 속 덕이의 다양한 모습들을 스스로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수줍은 표정으로 웃음을 짓는 모습들은 덕이의 순수함을 영락없이 닮아 있었다. 영화를 보고 난 뒤 욕망에 사로잡힌 덕이보다 훌라후프를 하며 수화를 하는 덕이의 모습이 더 기억에 남은 것은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모델 일을 시작했을 때 이솜은 멋진 화보를 찍고 싶었다. 새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이솜을 자연스럽게 배우의 길로 이끌었다. 2010년 데뷔작 '맛있는 인생'을 시작으로 '푸른소금' '하이힐' '산타바바라' 등의 영화와 드라마 '유령'까지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차곡차곡 연기력을 쌓아 왔다.

"배우도 자신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모델과 비슷해요. 다만 하나의 캐릭터를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배우만의 즐거움이 있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재미있고요. '모델 출신 배우'라는 수식어는 신경 안 쓰려고 해요. 더 다양한 모습,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마담 뺑덕'으로 관객들이 제가 누구인지 궁금해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김민주(라운드테이블) 디자인/최송이

나영석 PD, 이서진과 '맨땅 밥상'

농촌 버라이어티 '삼시세끼'… 쉽지 않은 예능 예고

나영석 PD가 배우 이서진, 2PM 옥택연과 함께 '남남 케미'를 앞세워 건강한 야외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tvN의 새 예능 '삼시세끼' 제작 발표회에서는 나영석 PD·이서진·옥택연·박희연 PD가 참석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나 PD는 "예전부터 이서진과 요리를 키워드로 한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갈등이나 스펙타클한 요소는 아니지만 마음과 정성이 느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삼시세끼'는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를 지향한다. 적당히 '한 끼'를 때우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낯설고 한적한 시골에서 가장 어렵게 한 번 해 보자는 의도가 바탕이 된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강원도 시골 마을이 배경이고 두 남자는 동거동락한다. 음식 재료는 현장에서 이서진과 옥택연이 직접 다 구한다. 요리 프로그램이지만 입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다른 프로와는 다르다는 게 '삼시세끼'의 특징이다.

나 PD는 "처음 나도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다"며 "'꽃보다 할배'에서 이서진이 할아버지들을 위해 어렵게 한 끼를 떠 준비하는 모습을 봤다. '삼시세끼'는 한편으로는 요리 프로그램이지만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건 아니다. 정성을 다해 소중한 사람에게 대접하려는 그 마음만큼은 진정성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영석 PD와 '꽃보다 할배'에서 한 차례 고생한 바 있는 이서진은 이날 "나 PD에게 또 속았다"는 뉘앙스의 말로 웃음을 자아냈다.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서 "이 프로그램은 망했다"며 의심과 불신으로 나 PD를 대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서진은 "무슨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서 진심을 다해 나영석 PD와 통화를 했다"며 "내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 '힐링 프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 이번엔 거짓말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농촌의 한가로운 생활과 시식같은 걸 생각했는데 녹화 며칠 전에 만나자고 하더니 구체적인 얘기도 없이 농촌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프로라고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프로의 한가지 특징은 여자 출연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나영석 PD는 "아마 여성 출연진이 같이 했다면 이서진과 옥택연은 다 맡겨 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금 서툴러도 고생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도시에서 자라고 해외 유학도 다녀온 두 분이라 실제 이미지와 전혀 다르게 시골 생활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삼시세끼'는 오는 17일 오후 9시 50분 첫 전파를 탄다.

/정혁혈기자 kmc0604@metroseoul.co.kr

나영석 PD

이서진(왼쪽)과 옥택연

'속사정 쌀롱', '개콘'과 맞짱

윤종신·진중권·신해철 '심리 토크쇼'로 도전장

월요일을 준비하는 시청자들에게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다. JTBC의 새 예능프로그램 '속사정 쌀롱'이 일요일 오후 9시 40분으로 편성 확정돼 '개그콘서트'와 접전을 예고했다.

'속사정 쌀롱'은 우리 주변의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다양한 속사정을 간단한 심리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인간 심리 토크쇼다. 다양한 방식의 실험을 통해 일상다반사부터 사회이슈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다룬다.

신해철·윤종신·진중권·장동민·허지웅·강신주 출연진으로 MC 라인업을 구성하며 일찌감치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에 출연해 신선한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룹 M.I.B의 강남이 견습MC 자격으로 합류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제작진 측은 15일 "동시간대에 KBS 2TV '개그콘서트'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며 "우리 프로그램은 심리 토크쇼를 표방하며 기존에 방송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 또 다른 시청자층을 형성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첫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만 차츰 자리를 잡아가면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막강한 MC들을 한 자리에 모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속사정 쌀롱'은 최근 첫 녹화를 마쳤다. 오는 26일 첫방송을 기다리고 있다. /김혁철기자

에픽하이 새앨범에 힙합 대세들 집결

빈지노·버벌진트·B.I·바비·송민호 피처링 참여

힙합계를 주름잡는 '대세' 래퍼들이 에픽하이의 새 앨범에 대거 참여한다.

YG엔터테인먼트가 16일 공개한 에픽하이의 신곡 '본 헤이터' 디지털 이미지에는 빈지노, 버벌진트, B.I, 바비, 송민호 등으로 구성된 초호화 랩 피처링진의 모습이 실렸다.

빈지노와 버벌진트는 다양한 장르와 연령대의 가수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정상급 힙합 뮤지션이다. 송민호는 YG의 새 보이그룹 위너의 래퍼로 주가를 높이고 있고, 바비는 '쇼미더머니 3' 우승자이자 YG의 새 그룹 아이콘의 예비멤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B.I도 아이콘의 멤버로 차세대 대표 아이돌 스타 겸 대세 래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각자 개성 강한 랩 스타일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에픽하이와 어떻게 조화를 이뤄 어떤 힙합 곡을 만들어낸 지 관심을 모은다.

'본 헤이터'는 에픽하이가 21일 내놓을 정규 8집 '신발장'에 수록될 곡으로 18일 0시 선공개된다. 8집에는 더블 타이틀곡인 '헤픈엔딩'과 '스포일러'를 비롯해 '막을 올리며', '부르즈 할리파', '신발장' 등 총 12곡의 독특한 제목의 곡들이 실린다.

8집은 21일 온라인 공개에 이어 22일 오프라인에 출시되며 21일까지 예약판매 된다. 에픽하이는 다음달 15~16일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개최하는 단독콘서트 '파레이드 2014'로 5년 만에 콘서트 무대에 선다. /유순호기자 suns@

대국남아, 정글 보이로 변신

그룹 대국남아가 15일 싱글 '릴라고'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릴라고'는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정글의 동물이 되어 자유롭게 놀아보자는 메시지를 담은 곡으로 일렉트로닉과 덥스텝의 강렬한 사운드가 인상적이다.

특히 멤버 현민이 프로듀서 팀 이어코닉사운즈의 커멘드 프릭스와 함께 '릴라고'의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 곡의 작사·작곡·편곡에 담당해 이름을 올렸다.

뮤직비디오는 미시아·싸엔블루·엠블랙 등과 작업한 일본의 마오 우라마츠가 연출을 맡았다.

이번 앨범에서 대국남아는 정글의 동물로 변신해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 멤버 가람은 인디언 보이로 변신해 자유롭고 순수한 모습을, 인준은 앵무새와 얼룩말의 이미지가 합쳐진 화려한 느낌을 표현했다. 현민은 타잔처럼 자유롭고 호랑이처럼 거친 이미지에 도전했으며 미카와 제이는 각각 독수리, 까마귀로 변신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

그래도
살만한
인생
tvN 8주년 특별기획
미생
임시완 | 이성민 | 강소라 | 강하늘 | 김대명 | 변요한 | 기획 tvN 제작 N°3 NUMBERTHREE PICTURES
10월 17일[금] 저녁 8시 40분 tvN 첫방송

SEOUL JAZZ FESTIVAL 2015

1st LINEUP

5. 23 SAT　5. 24 SUN　5. 25 Buddha's Birthday　OLYMPIC PARK

SERGIO MENDES

MIKA

GREGORY PORTER

CARO EMERALD

AND MANY MORE

제9회 서울재즈페스티벌 1차 라인업.

서울재즈페스티벌 1차 라인업 공개

세르지오 멘데스·미카·그레고리 포터 쟁쟁

내년 5월 열리는 제 9회 서울 재즈 페스티벌의 1차 라인업이 공개됐다.

15일 공개된 라인업엔 세르지오 멘데스·미카·그레고리 포터·카로 에메랄드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이름을 올렸다.

보사노바 음악의 거장 세르지오 멘데스는 반세기 이상 브라질 음악의 아이콘으로 사랑받고 있다.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미카는 화려하고 독창적인 무대로 음악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레고리 포터는 올해 열린 제 56회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재즈보컬 앨범상을 수상하며 대형 재즈 가수의 탄생을 알렸다.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 카로 에메랄드는 복고풍의 재즈 사운드에 세련된 비트로 국내 음악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지난 2007년 첫 선을 보인 서울재즈페스티벌은 조지 벤슨·어스 윈드 앤 파이어·팻 메스니·데미안 라이스·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등 세계적인 뮤지션들을 초대해 국내 음악팬들에게 소개하며 봄을 상징하는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약 60여개 팀이 참가할 예정인 제9회 서울 재즈페스티벌은 내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체조경기장·SK핸드볼경기장·수변무대에서 열린다.

한편 오는 23일 정오엔 할인된 가격에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수퍼 얼리버드 티켓 오픈'이 시작된다. /김지은 기자 kanzi@

TV 드라마 변신 '웹드라마'

고급화·배우 인지도↑… "지상파 콘텐츠 진화해야"

TV 드라마가 변신하고 있다. 웹과 만난 웹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콘텐츠 연출력이 고급화되고 인지도 있는 배우가 출연한다. 최근 KBS는 지상파 최초로 네이버와 함께 단막극을 웹 버전으로 선보였다.

KBS2 드라마 스페셜 2014 '간서지열전' 웹 버전이 지난 13일 공개된 이후 하루 만에 조회 수 6만 건을 기록했다. 홍길동전 탄생 비화에 미스터리 추리를 더한 '간서지열전'은 지상파 콘텐츠로선 웹과 모바일 플랫폼에 선공개 되는 첫 번째 작품이다.

총 일곱 차례에 걸쳐 네이버 TV 캐스트 '웹드라마 간서지열전' 채널에서 방영된다. 매일 10분씩 6차례에 걸쳐 네이버 TV 캐스트로 볼 수 있다. 마지막 7회는 오는 19일 일요일 밤 12시 KBS 2TV 본방송 직후 공개된다. 영화 같은 영상과 빠른 극 전개가 시선을 사로잡는다는 평가다.

인지도 있는 스타가 출연하기도 한다. 과거 신인 배우나 아이돌 그룹 위주로 캐스팅됐던 사례와 다르다. 웹드라마 '연애세포'에는 장력 김우빈·김유정·박성현, 그룹 포미닛 남지현 등이 출연한다. 웹드라마 사상 최고의 캐스팅이며 공개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연애세포'는 2010년 7월~2012년 3월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걸그룹 스타를 꼬시기 위한 모태솔로남의 고군분투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15일 오전 11시 네이버 TV캐스트 채널을 오픈한 후 내달 3일 첫 방송된다.

웹드라마 '텔레포트 연인'

인기 드라마의 여운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웹드라마 '텔레포트 연인'엔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잔실(배누리)과 양명 아역(이민호)이 출연한다. 배누리와 이민호는 '해품달'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텔레포트 연인'을 통해 푼다.

20대 취업 준비생 커플로 재회했으며 작품은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텔레포트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을 통해 2030세대의 고민과 열정을 이야기한다. 국내 최초 웹드라마 '러브인 메모리'의 박선재 감독이 극본과 연출을 맡았으며 한 회당 10분씩 총 4부작이다. 지난 13일 네이버 TV캐스트에 4부작이 동시에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본 방송을 보지 않는 시청 패턴이 많아지고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지는 게 웹드라마 인기가 높아지는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황의경 KBS CP는 "지상파 드라마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위기가 시작된 것 같다"며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고 진화하지 않으면 존립하기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전효진 기자 jeonhj@metroseoul.co.kr

KBS2 드라마스페셜 2014 '간서지열전'

웹드라마 '연애세포'

브래드, 김성령 영어 선생님 되다

MBC '띠동갑내기 과외하기'로 호흡

지난 추석 특집 프로그램으로 선보였던 MBC '띠동갑내기 과외하기'가 정규 프로그램으로 안착했다.

17일 오후 10시 첫 방송되는 '띠동갑…'은 적게는 12살 많게는 60살까지 차이 나는 띠동갑 어린 스승과 나이 많은 제자가 학습 이뤄 영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중국어 등을 배우는 이야기를 다룬다.

추석 특집 '띠동갑…'에서 가수 성시경에게 영어 과외를 받았던 배우 김성령은 이날 방송에서 새로운 원어민 선생님을 만난다. 새 영어 선생님은 그룹 버스커버스커의 브래드로 김성령의 숨겨진 영어 실력을 끄집어 낼 예정이다. 특히 브래드는 버스커버스커 멤버를 없이 처음으로 지상파 예능에 출연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MBC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버스커버스커 브래드(왼쪽), 배우 김성령.

한편 이날 방송에선 배우 송재호는 아역배우 진지희에게 SNS 사용법을 배우며 개그맨 정준하와 가수 김희철은 후배 가수 지예라의 가르침에 따라 중국어 배우기에 도전한다. /김지은 기자

박해진 中 롯데시네마 브랜드관 오픈

배우 박해진(사진)이 중국 심양 롯데시네마에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관을 연다. 지난해 2월 1일 중국 롯데시네마 천진관에 '박해진관'을 오픈한 후 두 번째다.

박해진은 오는 17일 개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날 출국할 예정이다.

박해진 브랜드관은 천진관, 심양관에 이어 3호점 쑤저우관이 계획돼 있다.

특히 박해진은 롯데시네마와 함께 천진관에 이어 심양관 수익 전액을 중국 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해진은 천진관 운영 수익금을 7개월 여아의 심장 판막 수술과 귀가 없는 5살 남아의 귀 재건 수술에 사용했다. 바쁜 일정에도 중국을 직접 방문해 아이들의 수술을 지켜봤으며 심장 판막 수술을 받은 아이가 돌잔치를 하자 선물을 챙겨 보내기도 했다.

소속사 측은 "기부와 선행에 관심이 많은 박해진은 이번 기회로 기부에 또 동참할 수 있어 기뻐했다"고 말했다.

박해진은 현재 OCN 드라마 '나쁜 녀석들'에서 연쇄 살인범 이정문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전효진 기자

보이후드 / 나를 찾아줘 / 인터스텔라

할리우드 유명 감독 신작 속속 상륙

'보이후드' '나를 찾아줘' '인터스텔라' 개봉 준비

비수기에 접어든 극장가에 할리우드 유명 감독들의 신작들이 활기를 불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다.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보이후드', 데이빗 핀처 감독의 '나를 찾아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가 그 주인공들이다. 이름만으로도 기대를 갖게 만드는 감독들의 신작이다.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은 국내에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3부작으로 잘 알려진 감독이다. 1991년 '슬래커'로 데뷔한 그는 '서버비아' '웨이킹 라이프' '스쿨 오브 락' 등을 통해 미국을 대표하는 젊은 감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오는 23일 개봉하는 '보이후드'는 6세 소년 메이슨이 18세가 되기는 12년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과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은 실제 6세 소년이었던 아역 배우 엘라 콜트레인을 캐스팅해 무려 12년 동안 촬영을 진행하며 진짜 성장담으로 영화를 완성시켰다. 올해 제64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에 해당하는 은곰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폐막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화제작으로 손꼽혔다.

오는 23일에는 데이빗 핀처 감독의 신작 '나를 찾아줘'가 개봉한다. 1990년대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커리어를 쌓아온 데이빗 핀처 감독은 '에일리언3'를 시작으로 '세븐' '파이트 클럽' '소셜 네트워크' 등을 연출하며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등 소설의 영화화에도 일가견을 보여 왔다.

'나를 찾아줘'는 결혼 5주년을 앞두고 아내 에이미(로자먼드 파이크)가 갑자기 사라지자 그녀를 찾아 나선 남편 닉(벤 애플렉)이 전 국민의 의심을 받는 용의자로 몰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 영화다. 여류작가 길리언 플린이 2012년에 발표한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화했다. 지난 3일 북미 지역에서 먼저 개봉한 영화는 2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며 흥행 중이다.

영화 팬들이 기다려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인터스텔라'는 다음달 5일 저녁에 개봉한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메멘토'를 비롯해 '다크 나이트' 3부작과 '인셉션' 등으로 지금 할리우드에서 가장 지적이면서도 재능 넘치는 감독으로 손꼽히고 있다.

'인터스텔라'는 전 세계가 식량난에 시달리면서 희망이 사라지자 희망을 찾아 우주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SF영화다. 디지털 기술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35mm 필름과 아이맥스를 향한 열렬한 지지를 보여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인터스텔라'를 35mm 필름과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했다. 국내에서도 전국 40여개 극장에서 35mm 필름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류승범·고준희 '절친 악당들'

임상수 감독 신작 캐스팅

임상수 감독의 신작 '나의 절친 악당들'(가제)이 류승범(사진 왼쪽)·고준희(오른쪽)·류현경·샘 오취리 등 주요 캐스팅을 확정하고 지난달 29일 크랭크인했다.

'나의 절친 악당들'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돈가방을 발견한 청춘들이 위험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류승범은 '베를린' 이후 2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으로 '나의 절친 악당들'을 선택했다. 이번 작품에 높은 신뢰와 열의를 보이고 있다. 주인공 지누 역을 맡아 특유의 유쾌하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매력으로 극을 이끌 예정이다.

와일드하고 섹시한 매력을 지닌 나미 역은 고준희가 맡았다. 지누, 나미와 함께 돈을 발견하는 야쿠부와 정숙 역에는 샘 오취리와 류현경이 캐스팅됐다.

이밖에도 감독 겸 배우 양익준이 범죄 조직 보스 음부키로 출연하며 김응수, 김주혁, 정원중 등 관록의 연기파 배우들도 함께 한다.

'나의 절친 악당들'은 폭스 인터내셔널 프러덕션 코리아의 네 번째 작품이다. 임상수 감독은 도발적 상상력과 영화적 재미, 메시지를 놓치지 않은 세련된 연출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영화는 내년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유지태 화면해설로 재능기부

어네스트와 [illegible]' 배리어프리버전 참여

배우 유지태가 애니메이션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의 배리어프리버전으로 재능기부에 나섰다.

사단법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남양주 종합촬영소 스튜디오에서 오성윤 감독의 연출과 배우 유지태의 화면해설로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의 배리어프리버전 녹음을 마쳤다.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은 벨기에 동화작가 가브리엘 뱅상의 '셀레스틴느 이야기'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2012년 칸영화제 감독주간 최고 프랑스 영화상, 2013년 LA영화비평가협회 최우수 애니메이션상, 2013년 세자르영화제 애니메이션 대상 등을 수상했다. 국내에선 지난 2월 개봉했다.

유지태는 이번 영화 화면해설로 배리어프리버전 제작에 처음 참여했다. 그는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은 평소에 좋아하던 작품"이라며 "정말 좋은 영화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어 자막을 넣은 영화다. '7번방의 선물' '더 테러 라이브' '도가니' '도둑들' '엔딩 노트' '천국의 속삭임' 등 다양한 작품들이 배리어프리 영화로 제작돼 왔다.

/장병호기자

이선균·김고은 변호사·검사 변신

'성난 변호사' 출연 10월 크랭크인

배우 이선균, 김고은이 영화 '성난 변호사'(가제·감독 허종호)에 캐스팅됐다.

'성난 변호사'는 유력한 용의자만 있을 뿐 증거도 시체도 없는 의문의 살인 사건을 맡게 된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 변호성(이선균, 사진 왼쪽)과 검사 진선미(김고은, 오른쪽)가 사건 뒤에 숨겨진 음모를 밝혀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이선균은 '이기는 것이 곧 정의'라고 믿는 승률 100%의 변호사 변호성을 연기한다. 냉철하고 이기적인 변호사로 데뷔 후 첫 법정영화에 도전한다. 김고은은 변호성과 사사건건 대립하지만 함께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는 의욕적인 검사 진선미로 극을 이끈다.

또한 사건을 의뢰하는 준지준 회장 역은 배우 장현성이 맡았으며 변호성의 곁을 항상 지키는 행동파 박사무장 역에는 배우 임원희가 캐스팅됐다. '성난 변호사'는 10월 중순 크랭크인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NC, 준PO 준비 박차

정규시즌 18개월 만에 가을야구 맛본다

한국 프로야구 막내 구단 NC 다이노스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정규시즌 전 경기를 마쳤다.

NC는 지난 14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현재 1위 삼성 라이온즈를 불러와 2-1로 역전승을 거두며 포스트시즌 담금질을 확실히 했다.

이날 경기는 정규시즌 3위를 확정한 가운데 포스트시즌에서의 선전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김경문(56) NC 감독은 "성원해주신 팬들께 감사드리며 포스트시즌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NC는 더 큰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도 NC는 준플레이오프(준PO)를 구상하며 치밀한 준비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김 감독은 NC의 선발 투수 에릭 해커(31)와 테드 웨버(30), 이재학(24)을 차례로 마운드에 올렸다.

준PO 1차전이 열리는 19일까지 이들 선발진의 실전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만한 경기가 없었다. 정규리그 1위 또는 2위가 확정된 삼성은 NC가 준PO에서 승리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다시 만날 수 있는 상대다. 이와 함께 가을 야구 단기전에서 기존 선발 투수의 불펜 활용 점검도 가능했다.

이날 웨버는 2이닝을 소화하며 1피안타 무실점으로 컨디션 조절에 성공했다. 이재학이 1이닝만을 소화했지만 무피안타 무실점 3개의 삼진을 기록하며 최고의 구위를 보였다. 김 감독은 이들 선발진을 활용해 준PO에서 폭넓은 투수 운용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준PO에서 만날 상대인 4위 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도 NC로서는 호재다.

LG 트윈스와 SK 와이번스는 시즌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17일 시즌이 끝나고 이틀의 휴식을 취한 뒤 준PO 무대에 오른다. 양팀 모두의 전력분석을 마친 NC는 여유롭게 두 팀의 대결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NC는 지난 3일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2011년 창단한 NC는 2013년 정규리그에 편성돼 4월 3일 롯데 자이언츠와 마산에서 정규시즌 1군 첫 경기를 치렀다. 2013 시즌에서 7위를 기록한 NC는 올해 3위로 뛰어올라 준PO 경기를 일찍감치 기다리고 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진출 18개월만에 가을야구를 맛보게 된 것이다.

/김하늘기자 [illegible]

삼성이 LG를 꺾고 4년 연속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했다. 삼성은 15일 오후 대구 시민야구장에서 열린 '2014 프로야구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5대 3으로 역전승을 거두며 프로야구 최초 정규시즌 4연패의 대업을 달성했다. 경기종료 후 삼성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 제공

삼성, 정규시즌 4연패

단일리그 시작 후 8번째 정규시즌 우승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 프로야구의 새 역사를 썼다.

삼성은 15일 대구 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5-3으로 승리하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지었다.

삼성이 홈에서 정규시즌 우승을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중일 감독이 부임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정규시즌 우승을 달성한 삼성은 올해도 승리를 거두며 4년 연속 정규시즌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삼성은 단일리그가 시작한 1989년 이후 올해까지 총 8차례 정규시즌 챔피언에 올랐다.

이날 삼성은 3회말 2사 1·3루에서 박한이의 우익선상을 타고 흐르는 2루타로 선취점을 뽑고, 2·3루에서 채태인의 2타점 우중간 2루타로 추가점을 냈다. 하지만 6회초 1사 1루에서 LG 박용택의 직선타를 2루수 야마이코 나바로가 놓치면서 2·3루 위기를 자초했다.

7회에는 무사 1루에서는 안손 불펜 차우찬이 대타 브래드 스나이더에게 우중월 2루타를 허용해 실점했다. 마운드를 이어받은 안지만은 손주인의 희생번트로 이어진 1사 3루에서 정성훈을 유격수 땅볼로 유도하며 홈으로 파고들던 스나이더를 잡아냈다.

그러나 다자주자를 잡으려던 포수 이지영이 송구가 우익수 앞까지 흐르는 악송구가 되면서 다시 2사 3루 위기에 몰렸고, 김용의 타석에서 안지만이 폭투가 나와 3-3 동점을 허용했다. 8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나바로는 유원상의 시속 136㎞짜리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좌중간 담을 넘기는 비거리 125m의 결승 솔로포를 터뜨렸다. 9회초 안지만과 임창용은 LG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승리를 확정했다.

정규시즌 우승으로 한국시리즈 티켓을 손에 넣은 삼성은 이로써 4년 연속 정규시즌·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노리게 됐다.

/김지선기자 [illegible]

LA다저스… 윗선부터 개혁 나섰다

38세 프리드먼, 구단 운영 전권 사장에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가 윗선부터 정리하며 본격 물갈이에 나섰다.

15일(한국시간) AP통신과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에 따르면 다저스는 구단 운영부문 사장직을 신설하고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에 편성된 탬파베이 레이스에서 부사장으로 일했던 앤드류 프리드먼(38)을 임명했다.

이로써 최근 9시즌 동안 다저스를 이끌어온 네드 콜레티 단장은 전임 고문 역을 맡아 프리드먼 사장과 스탠 카스턴 구단 최고경영자(CEO)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셈이다. 다저스가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무기력하게 탈락한 것에 대한 책임을 콜레티 단장에게 물은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봉 총액이 2억3400만 달러

앤드류 프리드먼 LA 다저스 신임 사장.

/AP 뉴시스

(약 2492억원)에 달했던 다저스는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하고도 올해 디비전시리즈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1승 3패로 밀려 탈락했다. 다저스 구단 측은 2년 연속 월드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한 것이 콜레티 단장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 돈을 투자한 만큼 결과를 뽑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큰 돈을 들여 영입한 베테랑 불펜투수들이 제 몫을 해주지 못한 것이 컸다. 운영 사장을 맡은 프리드먼은 전력 구성, 트레이드, FA 영입 등 시즌 운용에 대한 전권을 쥐게 될 전망이다.

2014년 우승 종료로 탬파베이 레이스에 몸담은 프리드먼 사장은 2005년 말 단장으로 임명됐다. 프리드먼 사장이 단장으로 일하는 동안 탬파베이는 4차례(2008년·2010~2011년·2013년)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2008년과 2010년에는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가 버티고 있는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서 지구 우승을 차지했다. 탬파베이가 지구 우승을 차지하고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한 2008년 연봉 총액은 고작 5100만달러였다.

/김하늘기자

"레알 마드리드전 복귀는 운명"

'핵이빨' 루이스 수아레스(27·바르셀로나·사진)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정예(?)복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수아레스는 15일 바르셀로나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는 세상의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19개 구단 가운데 복귀전 상대가 정확히 레알 마드리드이고 장소가 베르나베우인 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화려한 복귀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수아레스는 2014 브라질 월드컵 이탈리아전에서 상대 수비수를 깨물어 4개월 활동정지 제재를 받았다. 월드컵 직후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구단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지만 시즌이 시작하고도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제재가 풀리는 날은 25일이며 제재 해제 하루 만인 26일 레알 마드리드와의 원정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는 전 세계 프로 스포츠 중 최대 라이벌 관계다. 수아레스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바르셀로나 이적 신고식을 한다는 것은 세계 축구팬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극적인 일정이다.

수아레스는 "징계기간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데도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징계가 완화돼 자국인 우루과이 대표로 평가전에 출전할 수 있었던 수아레스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과의 경기에 출전하며 변함없는 기량을 과시했다.

수아레스는 "바르셀로나에서 꼭 성공하고 싶고 타이틀에 '목고프다'며 "항상 뛰기를 원해온 구단인 바르셀로나에서 잡은 기회를 최선을 다해 이용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송승호기자 [illegible]

프로야구 전적 (15일)

■ 잠실

SK	001	000	011	3
두산	301	102	00X	6

[illegible]

■ 대구

LG	000	001	200	3
삼성	003	000	02X	5

[illegible]

■ 사직

넥센	300	040	000	7
롯데	330	000	000	6

[illegible]

프로농구 전적 (15일)

인삼공사	13	19	21	25	7	85
삼성	25	23	15	18	9	92
LG	18	23	23	15		79
KT	18	22	18	24		84

처음
그 부드러운
느낌처럼
부드러운 소주